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 1박2일

simpro

소개글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 평창, 강릉, 정선으로 떠난 여행입니다
광주에서 승용차로 찾았는데요, 문체부 주간지 위클리공감에 축약해 소개되었습니다.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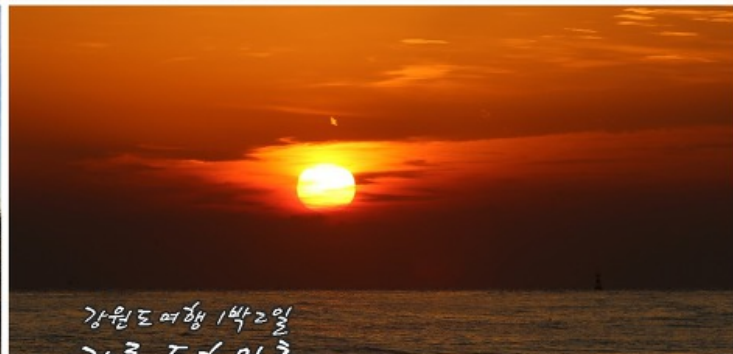
1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로 떠난 1박2일 여행. 프롤로그	4
2	(강원도 1박2일 여행)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 평창. 대관령눈꽃축제가 기다려져.	9
3	(강원도 1박2일 여행)어서 와! 대관령 하늘목장은 처음이지?	23
4	(강원도 1박2일 여행)어서오개! 정동진은 처음이지?	78
5	(강원도 1박2일 여행)어서오개! 강릉 커피거리도 처음이지?	109
6	(강원도 1박2일 여행)친절한 문자가 계속 날라온 아들이 예약한 강릉 연곡펜션	139
7	(강원도 1박2일 여행)보름달같이 거대한 동해일출을 볼 수 있는 곳. 영진 해변	167
8	(강원도 1박2일 여행)영진해변 드라마 '도깨비'촬영지 히트다 히트!	192
9	(강원도 1박2일 여행)강릉 오죽헌에서 신사임당의 참교육을 느껴보다.	215
10	(강원도 1박2일 여행)관동 제일의 명가 선교장. 그저 입이 떡 벌어지더이다.	245
11	(강원도 1박2일 여행)정선 아우라지 돌다리에서 즐긴 잠깐의 산책	279
12	(강원도 1박2일 여행)정선 5일장에서 먹어본 콧등치기, 올챙이국수, 곤드레밥	299
13	(강원도 1박2일 여행)정선 병방치 스카이워크에서 본 한반도지형	319
14	(강원도 1박2일 여행)금광산과 천연동굴로 어우러진 테마동굴 정선화암동굴	335
15	(강원도 1박2일 여행)특소는 신비로운 맛! 정선 화암약수	383

01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로 떠난 1박2일 여행. 프롤로그

강원도 1박2일 여행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
광주에서 출발해 강원도 1박 2일 다녀오기!





안녕하세요. simpro입니다.

무술년 새해가 밝았지만 새해 인사로 광주 영산강 일출을 보여드리고 지난해 봤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기능사 합격수

기 외 소식을 전하지 못해 아쉬웠는데 드디어 강원도 1박2일 여행기로 장시간 만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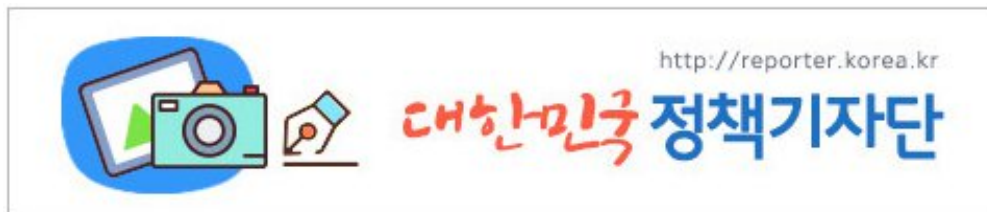
아직 사진만 정리했지 다녀온 감흥을 글로 옮기지 못했는데요, 14편이나 되다 보니 일주일에 3편씩 발행해도 한 달이 넘게 걸립니다.

프로야구 비시즌이라 야구 포스팅은 한가하지만, 회사일로 바빠 통 여행을 떠나지 못했는데 강원도 1박 2일 여행 하나로 근 한 달 넘게 소재가 고갈될 우려가 없어 기쁘기만 합니다.^^

갑자기 결정된 취재로 여행 계획을 하루 전에 급하게 짜느라 놓친 것도 많은데요, 그래도 나름대로 광주광역시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까지 올라가 1박2일 동안 올림픽 경기가 치러지는 평창, 강릉, 정선을 돌아다니며 알차게 여행을 즐겼답니다.

그럼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강원도로 떠난 1박2일 가족여행기를 소개하도록 하는데요, 오늘은 전체 일정만 사진으로 소개합니다.

첫날은 광주에서 평창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으로 이동해 점심을 먹고 평창 주요 볼거리로 대관령 하늘목장을 소개하며, 강릉으로 이동해 강릉 정동진 - 강릉 커피거리 - 강릉 연곡펜션 - 강릉 영진해변 일출 - 강릉 영진해변 도깨비 촬영지 - 강릉 오죽헌 - 강릉 선교장 - 정선 아우라지 돌다리 - 정선 5일장 - 정선 화암동굴 - 정선 화암약수로 1박 2일 이동하면서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그럼 평창으로 떠난 1편을 기대해 주세요
~~Coming soon!!



(글 : 포토뉴스코리아 simpro)

트위터 ☞ <http://twitter.com/huhasim>

페이스북 ☞ <http://facebook.com/inseob.shim.7>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simpro61>



해찬에서 하는 일

- 태양광발전소 설계·시공(Rps)
 - 태양광발전소 유지보수업(모듈·인버터·구조물)
 - ESS 설계·시공(태양광발전 저장시스템)
 - 태양광발전소 중개 및 컨설팅
 - 가정용 태양광·업소용 태양광(3kw~10kw)
 - 전기 공사업
- ☎ **062-572-3633/010-3295-3633**

02

(강원도 1박2일 여행)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 평창.대관령눈꽃축제가 기다려져.

(강원도 1박2일 여행)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 평창. 대관령눈꽃축제가 기다려져.

2018.01.12 06:00

강원도 1박2일 여행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

광주에서 출발해 강원도 1박 2일 다녀오기!

DAY 1

동계올림픽 메인스타디움이 있는 평창

1.평창올림픽스타디움 - 2.황태덕장(점심) - 3.대관령하늘목장



01 평창올림픽스타디움



이제 평창동계올림픽까지 한달도 채 안남았는데요, 북한이 참가한다는 기쁜 소식도 있어 더 성대한 올림픽이 될 듯 합니다.

simpro는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취재가 주로 평일에 몰려있다 보니 직장인으로서 늘 아쉽게만 느꼈었죠.

그런데 모처럼 날짜와 관계없는 취재가 있어 신청했는데 운 좋게 선정이 돼 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강원도 평창과 강릉, 정선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들어간 경비가 원고료보다 두배나 더 많았지만, 가족이 함께 1박 2일 강원도로 떠나는 여행을 늘 생각하고 있던차에 여행경비의 절반을 원고료로 충당할 수 있어 몸은 피곤했지만 가족화합과 힐링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블로그에서 14편으로 발행될 내용을 간추려 A4용지 2페이지 분량의 원고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사진도 달랑 4장만 들어간다고 하니 심사숙고할 일만 남았군요.

취재 내용은 광주에서 승용차로 출발해 올림픽경기가 열리는 평창, 강릉, 정선을 여행하면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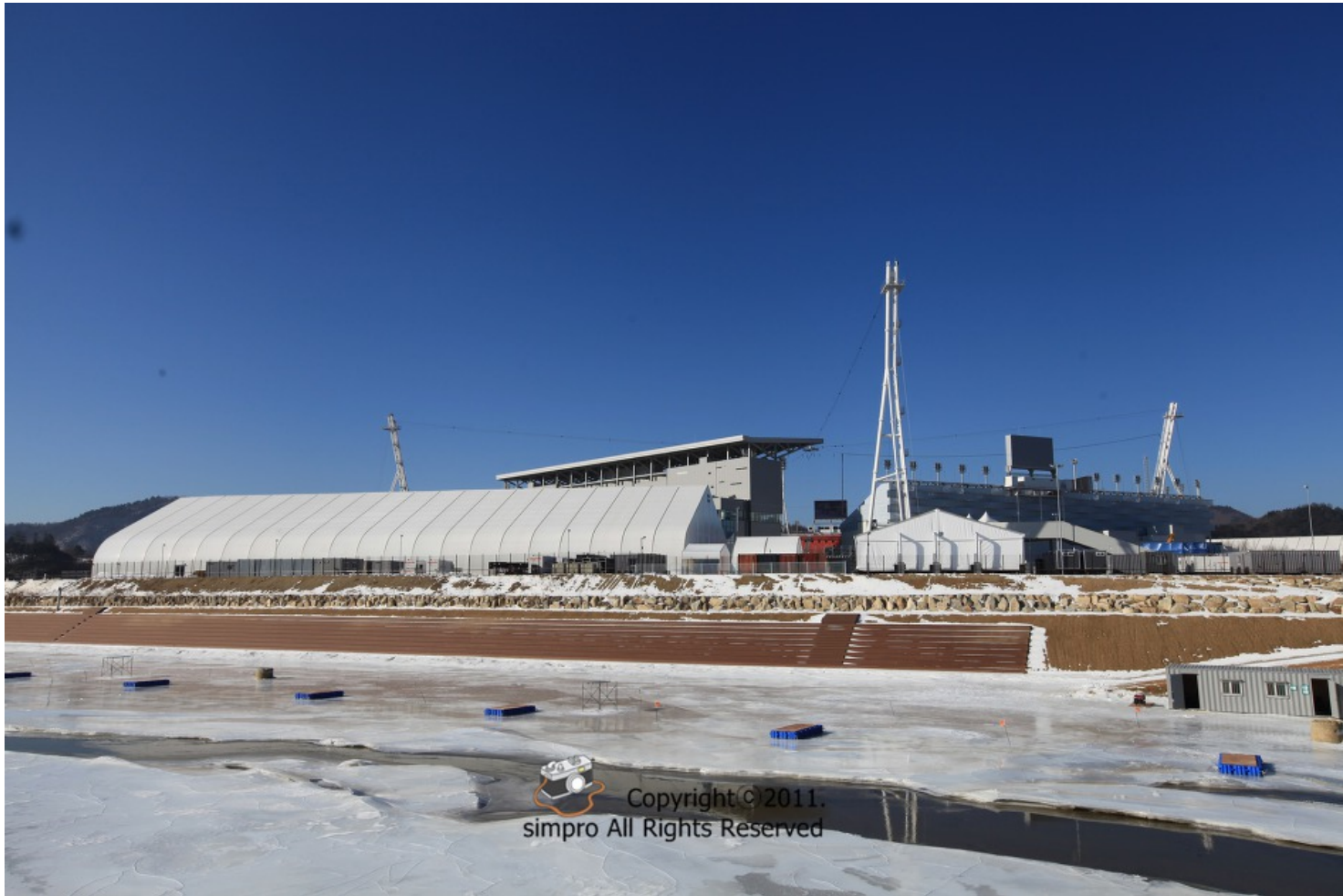
를 소개하는 여행설계가 기본인데요, 저도 어떻게 써야할 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개폐회식이 열리는 평창올림픽스타디움입니다.

출입이 철저히 통제돼 들어갈 순 없었지만, 먼 발치에서 보니 전광판 시연작업이 한창이더군요.

아직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곳도 있지만, 한 달 정도 남았기에 충분히 기간 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창읍내를 가로지르는 송천에서 바라본 올림픽스타디움
3만 5천석의 관중석과 7층에 이르는 본관 규모가 위풍당당입니다.



하늘에서 보면 오각형의 형태를 띄고 있다는데요, 평창올림픽의 5대 목표인 문화, 환경, 경제, 평화, 정보통신기술을 의미한다네요.

그렇지만 아쉽게도 약 1,000억원이 넘는 공사비가 들어간 올림픽스타디움은 올림픽과 패럴림픽 개폐막식 4번 치르고 올림픽스타디움은 올림픽이 끝나면 철거된다고 합니다.



원래 스키점프 경기가 열리는 평창 알펜시아 경기장을 개폐막식 장소로 사용하려고 했다가 IOC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고 어쩔 수 없이 건설하게 되었다는데요, 최소한 IOC에서 공사비의 절반은 대줘야 하는 것은 아닌지... ㅎㅎ



송천에는 지금 한창 제설기로 눈을 만들고 있네요.

어마어마한 눈이 쌓이고 있는데요, 평창에서 대관령 눈꽃축제가 2월 7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데 각종 눈 조형물을 만들려고 그런가 봅니다.



대관령 눈꽃축제

기간 : 2018년 2월 7일(수) ~ 2월 22일(목)

장소 : 평창군 대관령면 송천 일원

요금 : 눈조각 (평일 5,000원 주말 7,000원)

눈썰매. 미끄럼틀. 썰매장(평일 5,000원 주말 6,000원)

종합권 (평일 15,000원 주말 17,000원)

홈페이지 : <http://www.snowfestival.net/>



아들이 호기심 잔뜩어린 시선으로 제설기에서 뿜어 나오는 눈을 바라보는데요, 눈이 내리지 않는 부산 따뜻한 곳에 있다 보니 이런 광경 낯설기만 하겠죠.



02 평창 먹거리 (황태구이)

아침에 6시에 출발해 배가 좀 고프네요.

평창에 11시 경 도착했지만 점심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식사모드로 들어갑니다.

송천 인근에는 식당들이 참 많은데요, 강원도 먹거리 황태구이로 점심을 해결합니다.

simpro는 2년 전 설악산 등반 때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요, 마치 매콤달콤한 치킨을 먹는 느낌? 아무튼 중전과 큰아들은 신기신기^^



장어구이 같기도 하고..ㅎㅎ 암튼 특별한 맛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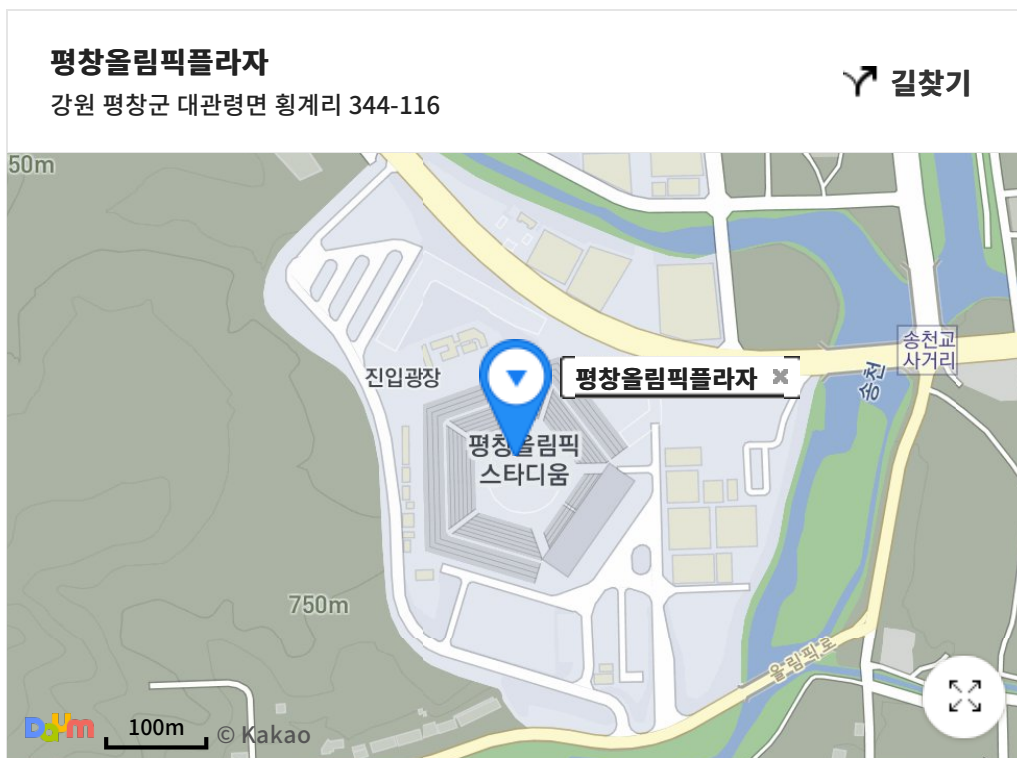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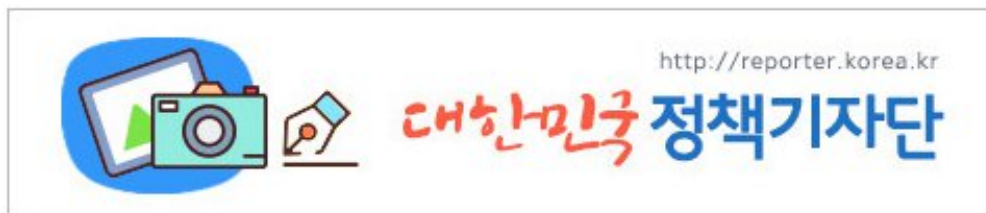


두부에 황태를 넣은 국물맛도 시원하더군요.

생생정보통에 나왔다는데, 하도 많은 곳이 나와 신비로움은 떨어지지만 서빙하는 친구들이 전문서빙이 아니라 가족들인 것 같아 모두 친절친절. 곧 있으면 올림픽 열린다고 올림픽 특수에 기대가 크더라고요.

일단 14편의 강원도 여행기 중 1편을 시작했으니 시작이 절반이라고 절반은 진행했네요.. ㅎㅎ
회사일도 바쁘고 집에 오면 헬스클럽에서 2시간 정도 운동도 해야 하기에 쓸 시간이 많지 않고 피곤하지만 일주일에 3편은 발행할 예정이니
띄엄띄엄 쓰더라도 이해해 주시길요^^.

다음 편은 DAY1. 03대관령 하늘목장입니다.



(글 : 포토뉴스코리아 simpro)

트위터 <http://twitter.com/huhasim>

페이스북 <http://facebook.com/inseob.shim.7>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simpro61>



해찬에서 하는 일

- 태양광발전소 설계·시공(Rps)
 - 태양광발전소 유지보수업(모듈·인버터·구조물)
 - ESS 설계·시공(태양광발전 저장시스템)
 - 태양광발전소 중개 및 컨설팅
 - 가정용 태양광·업소용 태양광(3kw~10kw)
 - 전기 공사업
- ☎ 062-572-3633/010-3295-3633

03

(강원도 1박2일 여행)어서 와! 대관령 하늘목장은 처음이지?

(강원도 1박2일 여행)어서 와! 대관령 하늘목장은 처음이지?

2018.01.15 06:00

강원도 1박2일 여행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

광주에서 출발해 강원도 1박 2일 다녀오기!

DAY 1

동계올림픽 메인스타디움이 있는 평창 대관령

1.평창올림픽스타디움 - 2.황태덕장(점심) - 3.대관령 하늘목장



03 대관령 하늘목장

강원도 1박2일 가족여행입니다.

평창도 처음이지만, 당연히 대관령도 처음이고 양떼목장도 처음입니다.

대관령에는 양떼 목장이 여럿 있다지만, 트랙터 마차를 타고 선자령까지 올라갈 수 있는 하늘목장으로 왔는데요, 눈이 제법 내렸지만, 선자령엔 눈이 다 녹아 조금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원래 이쪽이 남쪽 지방 산악회에서 겨울이면 단골로 가는 눈꽃산행 지거든요.



하늘목장은 1974년에 조성된 목장이라고 해요.

해발 1,157m 대관령 최고봉인 선자령에 있으며 3백만여 평에 이른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보니 400여 마리의 젃소, 100여 마리의 면양, 40여 마리의 말이 자연생태 순환시스템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데요,

관광객에게 개방한 것은 40년 만인 2014년 9월이었다고 하네요.

영화 '웰컴 투 동막골'과 MBC '우리 결혼했어요' 등 수많은 작품의 탄생지인데요, 웰컴 투 동막골은 거의 다 이곳에서 찍었다고 해요.



하늘목장을 들른 후 강릉으로 이동해야 하는 관계로 걷지 않고 트랙터 마차를 타고 선자령까지 올라가기로 합니다.



큰아이는 강원도로 친구들과 몇 번 여행을 왔다는데, 중전은 태어나서 강원도 여행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물론 simpro도 군 생활을 강원도에서 했지만 전역 후 이번이 세 번째 강원도 여행일 정도로 그동안 소원했던 곳입니다.
둘째 아이도 왔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하필 영화촬영이 있다고 해서 두고 온게 영영 아쉽습니다.



트랙터 마차를 10여 분 타니 선자령 인근까지 우리를 데려다주네요.

설악산 백담사에서 봉정암으로 가는 2박 3일 순례 때 설악산 대청봉에 오른 후 가장 높은 강원도 산에 올랐습니다.



수십 기의 풍력발전기가 새로운 풍경을 보여주군요.

강원도에 있는 풍력발전기 대다수가 대관령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건너편은 대관령 삼양목장 같은데요, 한 무리의 인파가 풍력발전기 주변에 있군요.
이곳 풍력발전은 강원풍력발전(주)가 운영하는데 2,000kw 풍력발전기 49기가 있다고 합니다.
시설용량이 무려 98MW인데요, 발전기 높이는 60m, 날개의 직경은 무려 80m.



이쪽은 대관령 양떼목장 방향.
저 건물은 무엇인지 모르겠군요.



영화 '웰컴 투 동막골' 촬영 당시 사용했던 비행기도 있어요.

그 위로는 무시무시한 거대 멧돼지 상도 있군요.

비행기가 불시착하는 장면. 멧돼지에 쫓기는 장면, 썰매를 타던 장면 등이 생각납니다.

2005년 개봉 당시로는 어마 무시한 650만 관객을 동원해 역대 53위에 랭크되었습니다.



simpro는 태양광발전소를 설계하고 시공하는 회사에서 일하죠.

풍력발전기 1기가 2MW이니 태양광발전소로 치면 8천여 평에 설치해야 할 발전용량이 딱 하나로 서 있는 것입니다.

태양광은 하루 평균 3.5시간 발전할 수 있으나 풍력발전은 바람이 불어야 발전을 하죠.

대관령이 아마 최적의 바람이 불기 때문에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날이면 어김없이 뜨는 태양과 달리 바람은 하루 평균 몇 시간 부는지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네요.

바람이 세게 불어도 발전을 못하니 바람이 불 때마다 자체적으로 생산된 전기를 저장하는 ESS가 필수로 1기당 설치단가가 높습니다.



이곳에 설치된 풍력발전기 49기의 총사업비는 2002년 시공 당시 1,600억 원으로 98MW이니 1MW 당 16억 원 정도 들었군요.

태양광 발전소도 땅값을 제외하면 2017년 현재 1MW당 16억 원 정도 들어가니 15년 차이가 나지만 설치비는 비슷합니다.

2015년 완공된 화순풍력발전소 2MW급 8기의 사업비가 380억 원이니 1기당 47억 5천만 원인데요, 15년 동안 1기당 건설비가 3배 정도 늘었군요.



가족 여행길에 들른 강원도 대관령 하늘목장.

주변 풍광도 아름답지만, 능선을 따라 늘어선 풍력발전기로 이국적인 풍경을 보여줍니다.



이런 거대한 풍력발전기 돌아가는 소리가 참 특이한데요, 큰 소음은 없는 것 같지만 저주파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늘었죠.



환경파괴 없고 소음공해 없이 풍력발전소가 들어선다면 두말할 나위 없는데 말이죠.





밑에서 보니 어마어마한 높이입니다.

높이가 60M라고 하는데, 20층 높이 아파트와 비슷하군요.





선자령까지 왔는데 기념사진은 당연.



나도 같이.



야한 가요? ^^



트랙터 마차에서 내려 약 20분 정도 주변을 구경했는데요, 다시 트랙터 마차를 타고 내려갑니다.
모두 3군데에서 내려 걸어내려갈 수 있다는데요, 우린 첫 번째 하차지에서 내려 걸어갑니다.
올라올 때 보니 저 아래 보이는 소나무가 멋져 보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광고를 이 소나무를 배경으로 찍었다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하지만 소나무를 보려면 좀 희생해야 합니다.

사방 천지가 소똥이거든요..ㅎ.ㅎ



다시 밖으로 나와 한 장 찍고 눈길을 내려갑니다.



강원도 1박 2일 여행에서 진정한 자유와 힐링을 경험한 중전..ㅎㅎ



아들이 몸 개그로 웃겨줍니다.

신발 밑창이 눈길에 취약해 그대로 벌러덩..벌러덩..ㅋㅋ



영금영금 기고... ㅋㅋ

멋내다가 얼어 죽는다고 멋부리려고 신은 신발에 이런 고통을 받을 줄이야... ㅎㅎ



Copyright©2011.
simpro All Rights Reserved

겨울에도 이렇게 멋있는데 푸른 초원이 깔린 봄이나 여름엔 또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풀 뜯는 망아지들?





말타기 체험도 있다는데...
설마 저 말들은 아니겠죠?



여기가 양떼체험인가?



염소에게 건초를 주는 귀여운 아이.









여기서 건초 1봉지에 2,000원을 주고 양에게 먹이 주는 체험을 해 봅니다.





졸졸졸 따라다니는 양들이 신기한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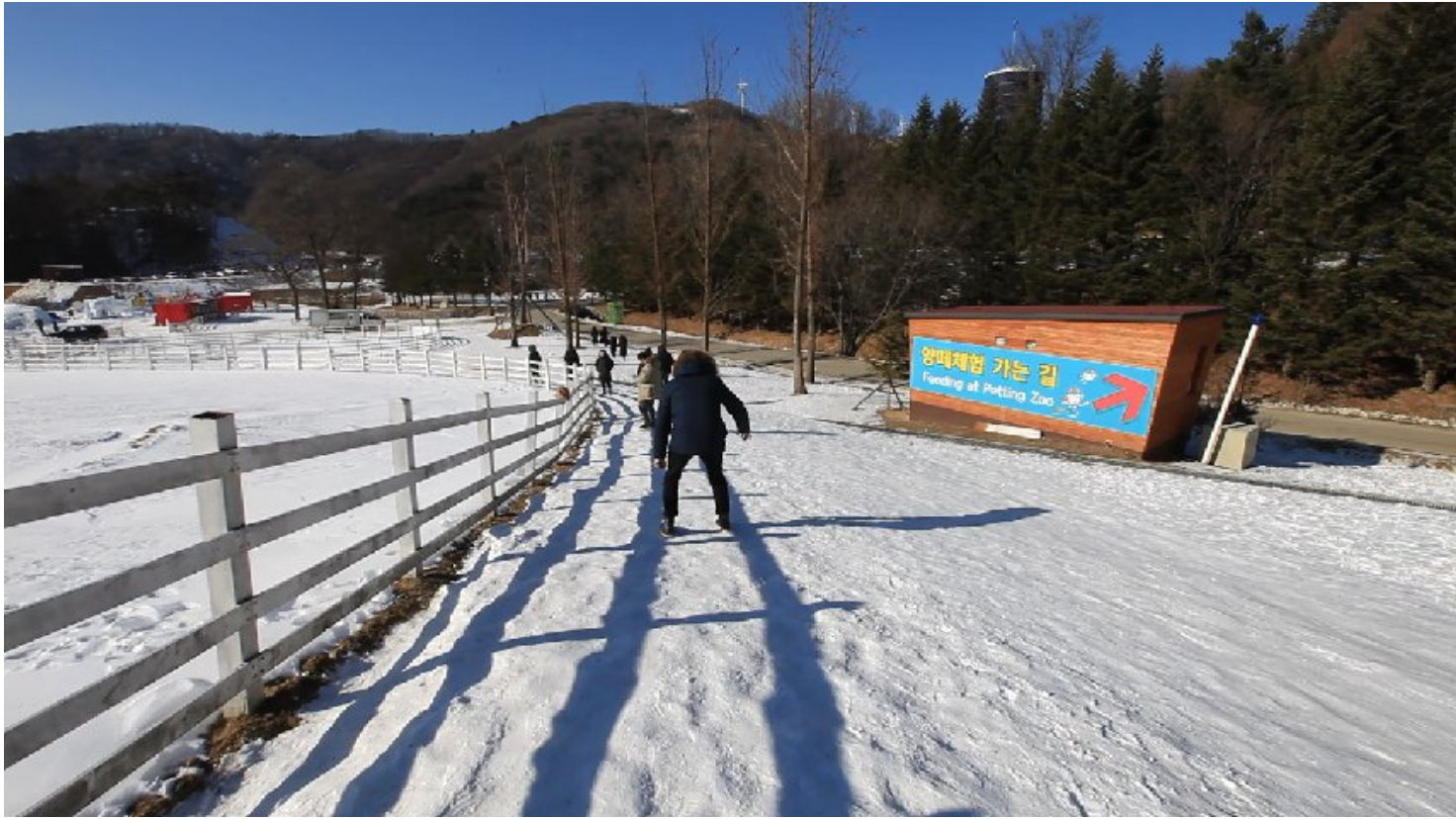








역시 내리막에서 또 몸 개그 보여주는 아들... ㅎㅎ
아예 미끄럼을 타고 내려갑니다.



(서비스 영상)



Copyright © 2011.
simpro All Rights Reserved

눈썰매장에서는 눈조각이 한창이군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뽀로로입니다.



눈썰매장은 무료라고 하던데.. ㅎㅎ

타보지도 못하고 강릉으로 출발합니다.

뭐~~눈썰매장이야 광주에도 많이 있으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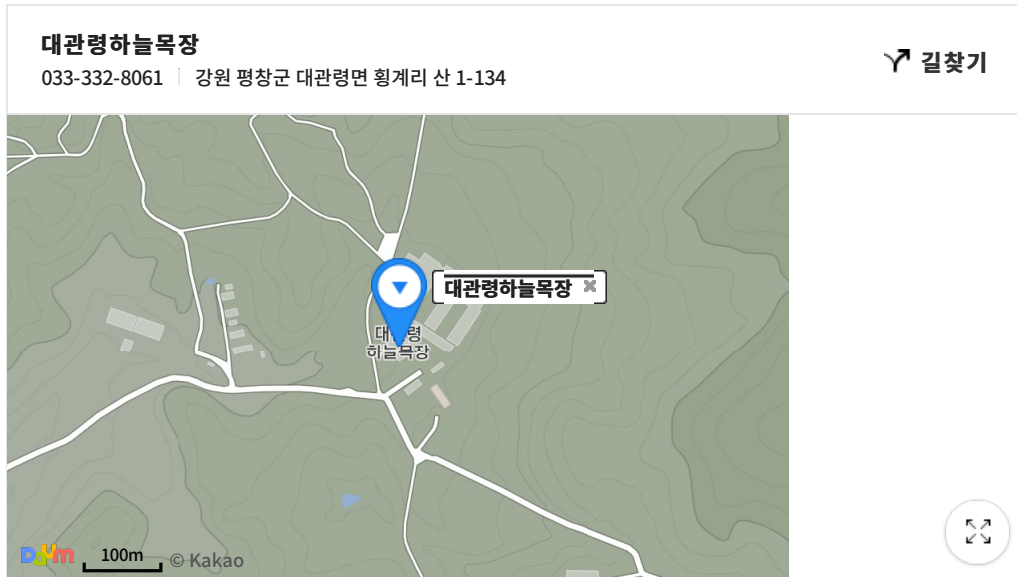
이제 어서 와! 평창은 처음이지? 물론 대관령도 처음이고 양떼목장도 처음입니다.. ㅎㅎ 편을 마치고 강릉으로 이동합니다.

이른 점심을 먹고 하늘 목장에서 많은 시간을 즐겼지만 아직 오후 3시네요.

원래 계획은 바로 커피거리로 가서 커피타임을 즐기다 식사를 하고 펜션에 들어가는 일정이었는데요, 예상치 않게 일찍 투어를 마쳐 정동진을 가기로 했습니다.

정동진도 처음이거든요.. ㅎㅎ

다음 편은 DAY1. 04 강릉 정동진입니다.



(글 : 포토뉴스코리아 simpro)

트위터 <http://twitter.com/huhasim>

페이스북 <http://facebook.com/inseob.shim.7>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simpro61>





해찬에서 하는 일

- 태양광발전소 설계·시공(Rps)
- 태양광발전소 유지보수업(모듈·인버터·구조물)
- ESS 설계·시공(태양광발전 저장시스템)
- 태양광발전소 중개 및 컨설팅
- 가정용 태양광·업소용 태양광(3kw~10kw)
- 전기 공사업

☎ 062-572-3633/010-3295-3633

04

(강원도 1박2일 여행)어서오개! 정동진은 처음이지?

(강원도 1박2일 여행)어서오개! 정동진은 처음이지?

2018.01.17 06:00

강원도 1박2일 여행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

광주에서 출발해 강원도 1박 2일 다녀오기!

DAY 1

동계올림픽 스키, 아이스하키가 열리는 강릉

4.강릉 정동진 - 5.강릉 커피거리 - 6.연곡펜션



04 강릉 정동진

강원도 평창 대관령 하늘목장을 나와 잘 닦인 고속도로를 달려 정동진에 도착했어요.

네비에 정동진을 치니 정동진역 바로 옆 터미널 주차장으로 알려주더군요.

정동진역은 드라마 모래시계로 유명한 역이라 이쪽으로 안내한 것으로 보이는데, 입장료 1,000원을 주고 역에 들어갔습니다.



영동선 바다열차도 있다는데, 오후 4시경 도착해서 보니 이미 마감되었더군요.

정동진역 미술관도 있는데 여기는 나올 때 보도록 합니다.



simpro가 사는 광주에서도 예전엔 정동진으로 가는 일출맞이 관광열차가 있었죠.
 차로 광주역 근처를 왔다 갔다 하면서 현수막을 볼 때마다 정동진을 꼭 가봐야 하는데~~
 결국 입맛만 다시다가 이제서야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광주에서 정동진까지 대중교통으로 가려면 강릉까지 고속버스로도 5시간 30분이 걸리고 거기서 또 정동진역으로 가야죠.

열차는 직통은 없고 광주에서 오송까지 KTX. 오송에서 제천까지 무궁화 열차. 제천에서 정동진역까지 무궁화 열차.
 이렇게 두 번을 더 환승해야 갈 수 있는 머나먼 곳인데요, 당시 관광열차는 8시간 20분 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정동진역에 새벽에 도착해 일출을 보고 모래시계공원 등 자유시간을 갖고 전세버스로 월정사, 휴휴암, 주문진 어시장, 추전역 등을 둘러보고 동해역에서 광주로 돌아오는 코스가 성인 1인당 89,000원 정도 했어요.

우리 식구는 이번 강원도 1박 2일 여행경비로 3명이 48만 원 정도 사용했는데요, 1인당 16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자동차 여행과 기차여행의 장단점을 잘 따져보고 여행 설계를 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



정동진에는 여러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특이한 것은 이렇게 열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해안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해안으로 내려가는 길은 없지만, 이곳에서도 바다 풍경을 보고 일출도 볼 수 있으니까요.

또한 드라마 모래시계 소나무로 유명한데요, 볼품은 없지만, 드라마에 나왔다는 이유로 역시 유명세.. ㅎㅎ



정동진

신봉승

벗이여,
바른 동쪽
정동진으로
떠오르는 저 우람한
아침해를 보았는가.

큰발원에서
작은소망에 이르는
우리들 모든 번뇌를 씻어내는
저 불타는 태초의 햇살과
마주서는기쁨을 아는가.

벗이여,
밝은나루
정동진으로

밀려오는 저 푸른 파도가
억겁을 뒤척이는 소리를 들었는가.

처연한 몸짓
염원하는 몸부림을
마주서서 바라보는 이 환희가
우리 사는 보람임을
벗이여, 정녕 아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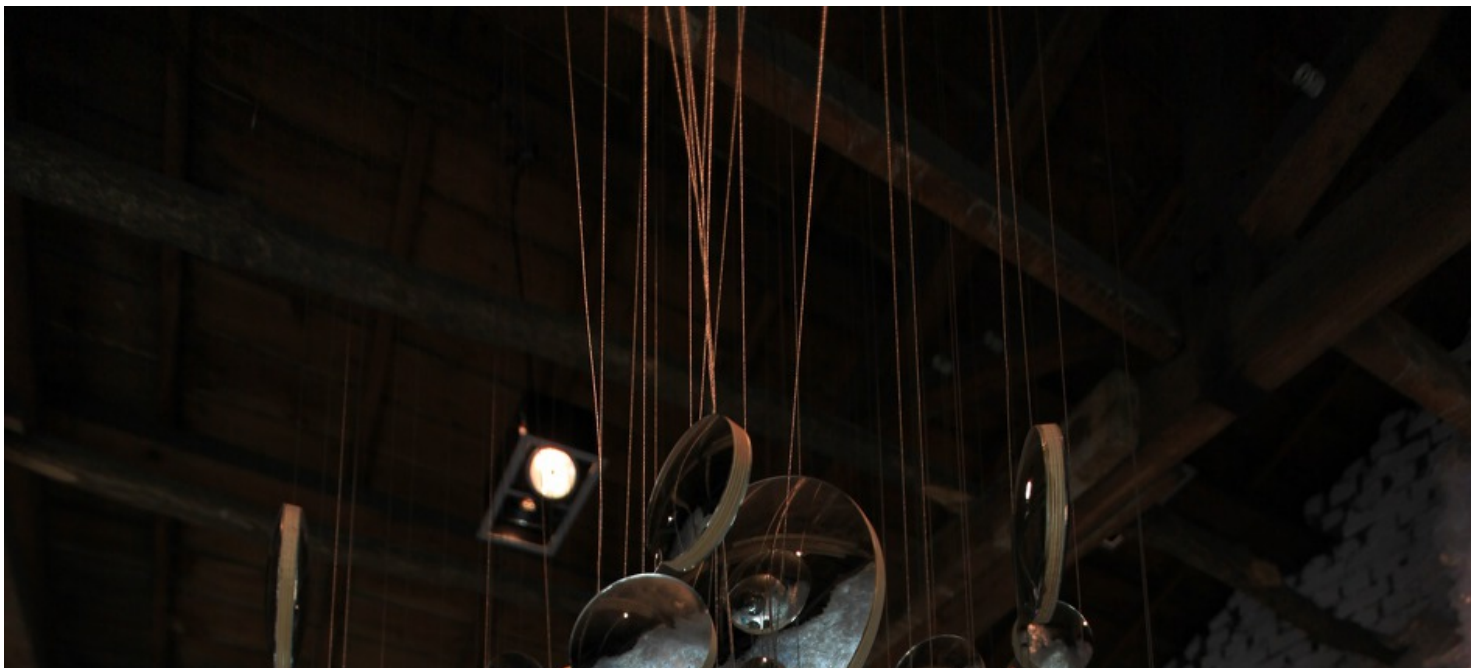


싯귀의 아침해는 보지 못했지만 상상을 해 봅니다.





이제 정동진역을 나와 해안으로 내려가봅니다.





정동진역 미술관엔 이런 조형물에서 수많은 나를 찾아보고...



simpro처럼 모두 외지에서 온 관광객으로 해변은 활기가 넘칩니다.
남해안과 달리 동해안은 모래언덕 경사가 높은 것이 특이하군요.



시키지 않아도 이런 인증샷은 필수...ㅎ





중전이 장난기가 발동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딱 철판이 떠오르죠.

조약돌을 집어 들고 무엇인가 쓰면 파도가 밀려와 싹 쓸어가버리죠.

그 순간의 추억을 남겨보기로 합니다.



뭘 쓸까요?



아..유치뽕입니다.. ㅎㅎ



그래도 아드님이 기념이라고 한 장 찍어줍니다..ㅎㅎ



시간이 넉넉했다면 저기 언덕 위에 있는 정동진 썬크루즈도 보고 모래시계공원, 조각공원도 가보는 것인데요, 아쉽기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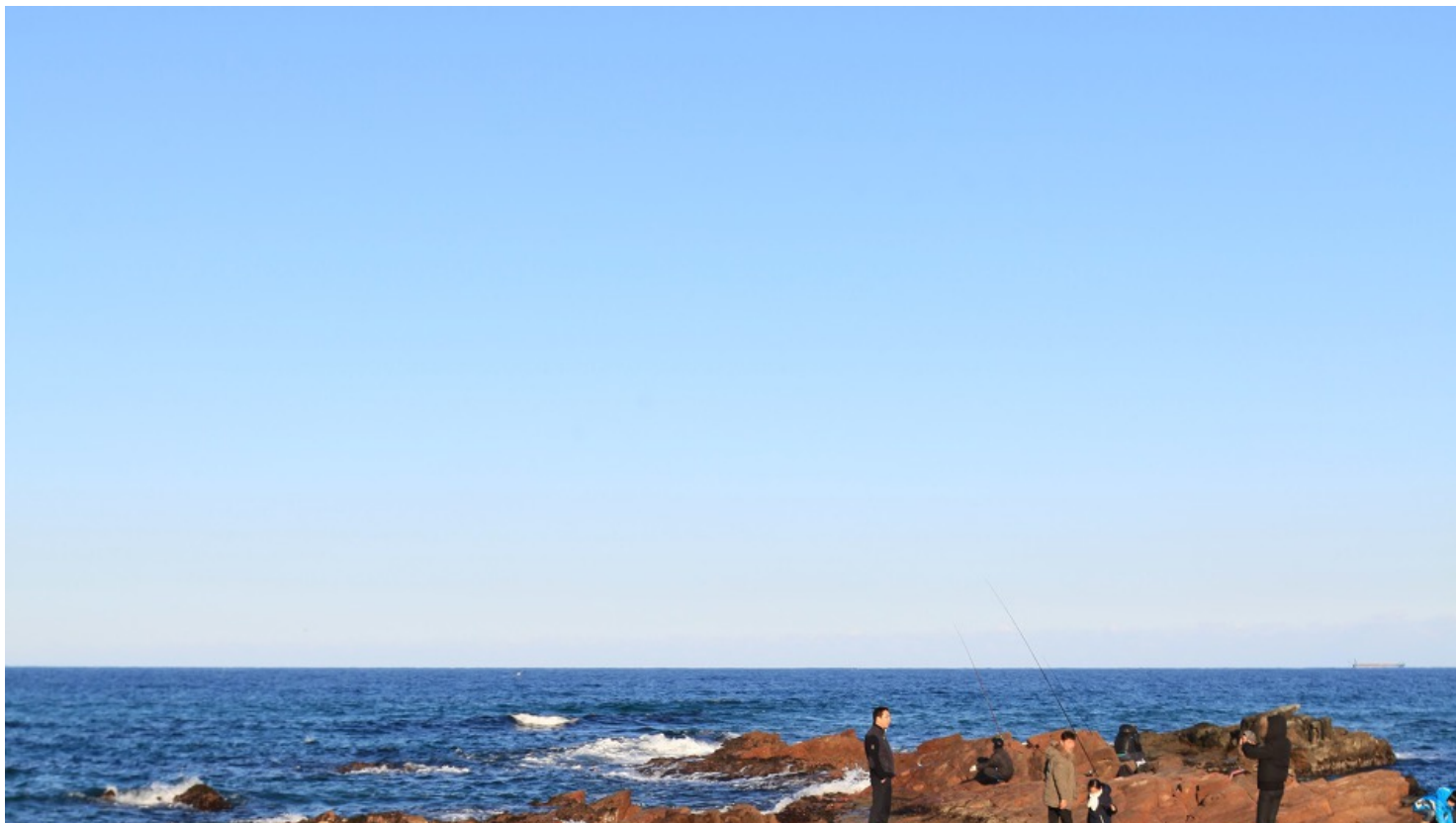


소녀적 감상으로 돌아가 마음껏 힐링하는 중전.



파도야~~ 나 잡아봐라~~~입니다.. ㅎㅎ







바다낚시를 즐기는 분들도 즐거운가 봐요.
긴 그림자놀이로 정동진의 마지막을 즐겨봅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정동진을 방문했어요.

2017년 강릉 방문객은 1466만 명이라는데요, 2016년에 비해 220만 명이 늘었다고 해요.

KTX 경강선이 개통된 12월에만 2016년 12월 대비 12만 8천 명이 늘었다는데요,

12월에 방문한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경포권으로 36만 8천여 명, 정동진권이 26만 5천여 명이었다고 해요.

강릉 전체로 봐도 두 번째로 많이 오는 관광지가 바로 정동진으로 특히 필자 같은 전라도 사람들에게겐 로망이나 같은 곳 이죠.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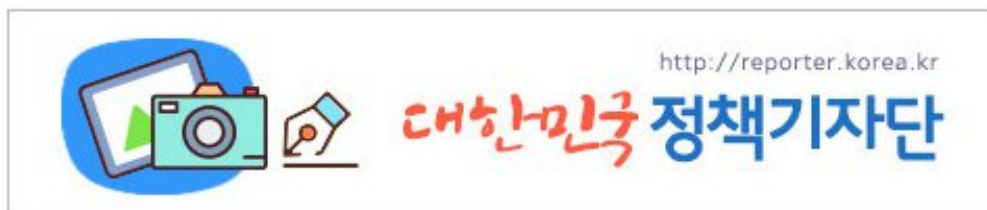


카..이것도 좀 타고 놀아야 하는데 말이죠..ㅠㅠ



강릉 커피거리로 가면서 본 통일공원의 함정전시관입니다.
 아들한테 '야~우리 저기 들어갔다 갈까?' 했더니, 돌아오는 말.
 '아부지 맨날 배 타는데 또 배 타요? ㅋㅋ'였습니다.

다음 편은 DAY1. 05 강릉커피거리 입니다.



정동진역

1544-7788 | 강원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303

📍 길찾기



(글 : 포토뉴스코리아 simpro)

트위터 🐦 <http://twitter.com/huhasim>

페이스북 📘 <http://facebook.com/inseob.shim.7>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simpro61>





(주)해찬ENC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 전기공사업

해찬에서 하는 일

- 태양광발전소 설계·시공(Rps)
- 태양광발전소 유지보수업(모듈·인버터·구조물)
- ESS 설계·시공(태양광발전 저장시스템)
- 태양광발전소 중개 및 컨설팅
- 가정용 태양광·업소용 태양광(3kw~10kw)
- 전기 공사업

☎ 062-572-3633/010-3295-3633

05

(강원도 1박2일 여행)어서오개! 강릉 커피거리도 처음이지?

(강원도 1박2일 여행)어서오개! 강릉 커피거리도 처음이지?

2018.01.19 06:00

강원도 1박2일 여행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

광주에서 출발해 강원도 1박 2일 다녀오기!

DAY 1

동계올림픽 스케이팅, 아이스하키가 열리는 강릉

4.강릉 정동진 - 5.강릉 커피거리 - 6.연곡펜션



05 강릉 커피거리

정동진에서 오후 4시경 출발해 강릉 안목해변 커피거리에 도착했습니다.

40분 정도 걸리더군요.

여기서 커피를 한잔 마시고 바닷가를 산책한 뒤 미리 예약한 주문진 근처 펜션으로 갈 예정입니다.

정동진에서 커피거리를 거쳐 주문진까지 가니 동선은 같은 방향인데요,

원래 계획은 커피거리에서 저녁식사까지 하고 펜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커피를 마시면서 아드님이 '펜션에서 자는데 숯불 바비큐 정도는 해야죠'라는 말에

갑작스레 저녁은 펜션에서 하는 걸로 변경했네요.



강릉 안목 커피거리는 주차할 장소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찾았습니다.

전국 최초로 커피축제가 열리는 곳인데요,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면 서운해야 할 커피 1세대 바리스타들이 포진하고 있는 곳입니다.

커피공장도 있고, 커피 박물관도 있으며, 바리스타 아카데미 등 다양한 콘텐츠가 있다는데요, 대부분 직접 로스팅한 커피를 내 주기에

커피 맛이 다 다르다고 해요.



인터넷에 꽤 많이 오르내리는 보사노바.

앉을 자리도 없고 카운터에서 줄 서서 주문하더라고요^^



커피 커퍼는 잘 아는 곳입니다.

2016년 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으로 평창동계올림픽 테스트 이벤트에 1박 2일로 팸 투어가 있었는데 당시 커피 커퍼의 커피 박물관에 간 적이 있기 때문이죠.

당시 포스팅 참고 : <http://blog.daum.net/huhasim/2544>



역시 전망 좋은 창가는 만석이인데요, 자리가 빌 때까지 다른 곳에 앉아 있다 잼싸게 이동해야 합니다.^^



베란다도 있어 나가봤는데요,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강릉 앞 바다가 시원스럽게 조망됩니다.



필자가 사는 광주에도 동명동 카페거리가 있는데요, 안목해변 커피거리는 전국적인 명소이죠.
지난해 강릉을 방문한 외지 관광객은 무려 1466만 명으로 2016년보다 18%인 220만 명이 늘었다고 해요.
KTX 경강선이 개통되면서 12월에만 전년 동월 대비 12만 8천여 명이 증가했다는데요,
주로 경포권, 주문진권, 정동진권으로 알뜰한 여행을 즐긴다고 해요. 대단하지요?



가로등을 보니 야경도 꽤 멋있을 것 같은데요,
커피숍에서 나가는 시간을 가로등에 불 들어오는 시간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넉넉하다 보니 다양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아드님 표정이 어두운데요^^



한참 연애 중인데 뭐가 잘 안 풀리나 봅니다..ㅋ



커피 커퍼 안목점은 안목 커피거리의 최초 커피전문점이라고 해요.
강릉에만 5군데 커피 직영점이 있다는데 이곳이 본점이나 마찬가지로.



그래도 여자친구 어머니 드린다고 드립 커피를 사더군요.

내 것은? 했더니 '대학생이 뭘 돈 있어요~~'

결국 내 것은 내 돈으로 샀습니다.ㅋ



우리처럼 가족이 온 경우는 거의 없더군요.

대부분 친구끼리 연인끼리 강릉커피거리를 찾았는데요, 연령대도 다양하더군요.





드디어 가로등에 전기가 들어왔네요.



어둠이 아직 않지만 근사한 야경입니다.



Copyright © 2011
simpro All Rights Reserved



모래 해변을 거닐며 많은 추억을 쌓네요.





모자지간에 무슨 할 말이 저리 많은지 딱 붙어 다닙니다.^^



 Copyright©2011.
simpro All Rights Reserved



아드님 얼굴이 환해진 것이 여자친구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군요^^
중전도 한번 봤다고 금세 환해집니다.
딸 같은 생각이 든다던데...



Copyright©2011.
simpro All Rights Reserved





평창2018올림픽도시 강릉.

이제 올림픽까지 20일 정도 남았군요.

지난 1988년 하계올림픽 때도 죽기 전에 한국에서 또 올림픽이 열릴 수 있을지 의문이었는데
딱 30년 만에 동계올림픽이 열리게 됩니다.

진짜 필자가 죽기 전에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올림픽인데요, 북한도 선수는 물론 예술단과 태권도 시범단 등 대규모 선수단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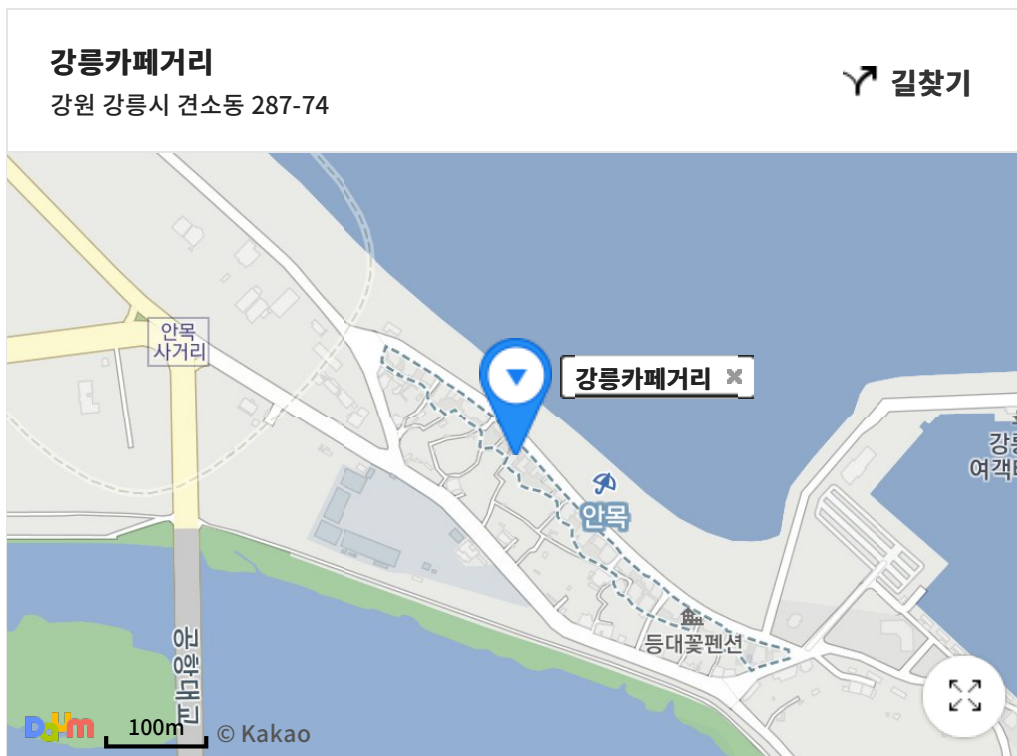
파견한다고 하니 성공적 개최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경기장마다 많은 관중이 꽉꽉 들어차야 하는데 말이죠. 티켓 판매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니 안심입

니다.

이제 강릉커피거리를 나와 주문진 근처 연곡면에 있는 연곡 펜션으로 이동합니다.

다음 편은 DAY1. 06 강릉 연곡펜션입니다.



(글 : 포토뉴스코리아 simpro)

트위터  <http://twitter.com/huhasim>

페이스북  <http://facebook.com/inseob.shim.7>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simpro61>



해찬에서 하는 일

- 태양광발전소 설계·시공(Rps)
 - 태양광발전소 유지보수업(모듈·인버터·구조물)
 - ESS 설계·시공(태양광발전 저장시스템)
 - 태양광발전소 중개 및 컨설팅
 - 가정용 태양광·업소용 태양광(3kw~10kw)
 - 전기 공사업
- ☎ 062-572-3633/010-3295-3633

06

(강원도 1박2일 여행)친절한 문자가 계속 날라온 아들이 예약한 강릉 연곡펜션

2018.01.22 06:00

강원도 1박2일 여행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

광주에서 출발해 강원도 1박 2일 다녀오기!

DAY 1

동계올림픽 스키이팅, 아이스하키가 열리는 강릉

4.강릉 정동진 - 5.강릉 커피거리 - 6.연곡펜션



06 강릉 연곡펜션

강원도 1박2일 여행 첫날 마지막 일정은 자는 것이죠^^

이번 여행은 정책기자단 공지로 갑작스럽게 결정된 여행이라 대학 졸업을 앞둔 아들이 시간이 넉넉해 강릉에서 잘 곳을 알아봤죠.

물론 필자도 여러 경로를 통해 알아봤지만, 3명이 주말에 펜션을 얻으려면 기본이 10만 원 대였습니다.

게스트하우스도 알아봤는데 1인당 20,000원에서 25,000원 정도 하더군요.

그것도 중전과 생이별을 해야 합니다..ㅋㅋ



친구들과 강릉으로 내일로 티켓을 끊어 여행을 와봤던 아들이 당시 경험을 살려 여기저기 수소문한 끝에 예약한 곳입니다.

물론 강릉 경포대 권이나 정동진, 주문진 등 바닷가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은 아니지만 단독으로 구성되어 있어 만족한 곳입니다.



가격은 3명이 게스트하우스에서 자는 것보다 쌔습니다..ㅋㅋ

그래도 가족이 한 방에서 자는데 전혀 무리가 없고 바닥도 전기패널이라 금세 따뜻했습니다.

주인장이 몇 번이나 도중에 들어올 시간을 알려주면 미리 보일러를 가동해 따뜻하게 해 놓겠다는 문자가 왔죠.

출발한 날 오전에 한번 중간에 한번 마지막에 한번 이렇게 당일 3번이나 문자가 와 놀랐습니다.

지금은 펜션 주인들이 고객을 위해 이렇게 문자서비스를 하나요?



강릉커피거리를 나서 강릉 이마트에서 저녁거리를 사서 들어왔습니다.

삼겹살, 소주, 맥주, 핫반, 김치, 상추, 쌈장 그리고 과일과 음료를 샀는데 펜션이라 취사도구는 다 있었죠.

하지만 취사를 하게 되면 1만 원이 추가되고 기본 2인에 1명 추가되면 역시 1만 원이 추가됩니다.

또한, 바비큐를 하게 되면 숯불과 가스 토치를 빌려주는데요, 그 비용이 또 1만 원.

뭐 그래도 8만 원에 이 모든 것을 해결했으니 다른 펜션들에 비해 엄청 저렴하게 하룻밤 자고 먹는 셈입니다.

물론 더 싸게 잘 수 있는 펜션도 있겠죠?



이렇게 가족이 단출하게 펜션에서 하룻밤 묵으며 바비큐 파티를 즐길 수 있다는 것.
 실로 오랜만에 갖는 자유입니다.
 큰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까지 만해도 휴가철이면 승용차에 텐트 장비 싣고 야영하곤 했었죠.
 야영과 달리 펜션은 이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 엄청 편하더군요. 돈이 좀 들어가서 그렇지..ㅋㅋ



바닥에서 둘이 자고 침대에서 아들이 잤는데 4명까지는 지낼 수 있겠어요.
온수도 펄펄 나오는데요, 온수 조절을 잘 해야 합니다. 물 온도 맞추기가 영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세면대에 물을 받아놓고 찬물을 섞어 그릇으로 퍼 씻었다는... ㅋ



아드님이 굶은일은 다 하군요.
바비큐는 고기 굽는 사람이 젤 잘해야죠.
노릇노릇하게 숯불에 굽고 버섯도 같이 굽습니다.



맥주를 4캔 샀는데 누가 다 마시려고?^^



작년 초 강진군 서포터스로 1박2일 강진청자 오토캠핑장 카라반에서 하루 묵으면서 즐긴 바비큐 파티가 생각납니다.
당시 삼겹살 굽는 냄새가 강진까지 날라갔다 나 어쨌다나?



중전마마까지 거듭니다.

필자는 하루 종일 운전하고 다녔다고 열외 시켜주군요.

군대 있을 때 열외 하면 얼마나 좋던지..ㅎㅎ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다음날도 마찬가지로 하루 종일 운전해야 하는 관계로 기분 좋은 열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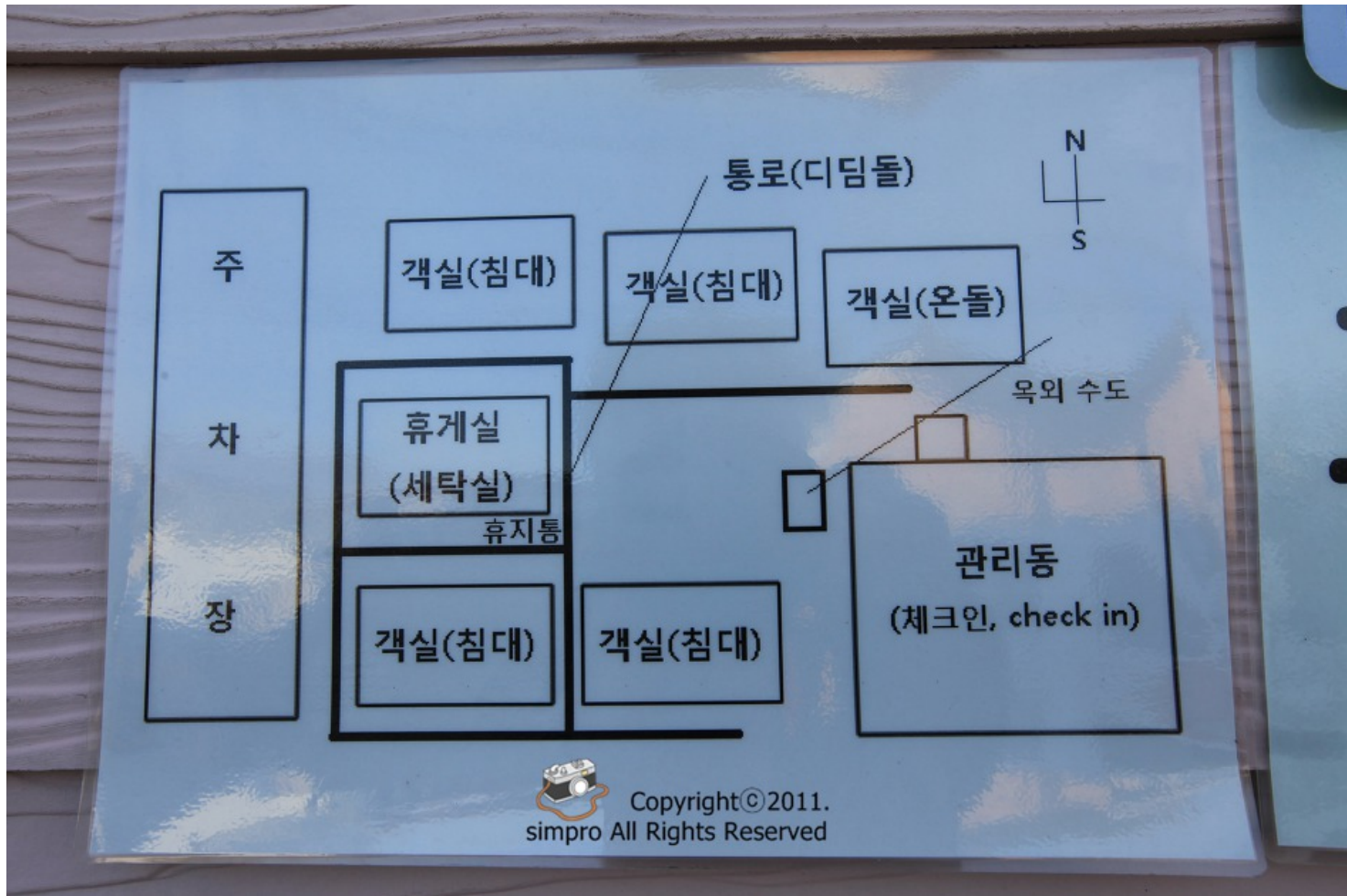




필자는 술을 안 마시지만 잘 때이니 모처럼 마셔봅니다.
피로를 풀려면 맥주 한잔 정도 마시야 폭 잘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 일찍 동해 일출을 보러 가야 하니 잠은 일찍 자야겠죠?



다음 사진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강릉 영진해변에서 일출을 보고 들어와 담은 연곡 펜션 전경입니다.
시골 동네 안에 있어 완전히 시골스러운 풍경인데요, 주인집 앞밭에 이렇게 펜션 단지를 꾸몄더라고요.



우리 가족이 잔 방은 왼쪽 맨 위 객실방.

침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둘이 자도 넉넉할 침대 1개와 온돌방입니다.

하지만 온돌로만 표시된 곳은 아마 침대는 없는 것 같아요.

굳이 바다까지 안 가도 펜션 뒤에서 도로 너머로 떠오르는 일출을 볼 수는 있습니다.^^



연곡 펜션 홈페이지도 있는데 사용하는 방법과 요금은 <https://blog.naver.com/eberuse>.



부드러운 아침햇살이 참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중전마마와 아드님이 침구 정리하고 준비하는 동안 마실 나가봅니다.







우리가 머물렀던 객실

조립식 이동형 주택으로 보이는데, 바다 풍경이 좋은 곳에서 세컨드하우스로 써도 딱 좋겠더라고요.

이런 조립식 건물이 1평에 300~400만 원 정도 하던데, 이것은 6평형이라고 하군요.

둘이 세컨드하우스로 살려면 내부 구조를 효율적으로 바꾸고 크기도 10평형 정도는 돼야지 싶어요.



물론 테라스도 가격에 포함되어 있죠.



주방 쪽을 좀 키워서 냉장고와 세탁기 정도는 놓을 자리를 만들고...
 옷장이 놓인 자리는 불박이로 옷장과 신발장을 만들고.



침대 쪽은 복층으로 꾸며 위에는 잠자는 공간, 아래는 책상과 의자를 놓고 별도로 수납장도 만들면 좋겠쥬.
서랍장 쪽엔 2인승 소파를 놓고 오른쪽 창앞에 TV를 놓으면 둘이 살기 딱 좋겠어요.^^



렌즈를 16-35를 가져갔는데 제대로 써먹네요^^

창문은 최대한 싱크대 쪽으로 붙인다면 소파 놓고 TV 장식장 놓을 자리는 나오겠쥬?

물론 10평으로 꾸민다면 말이죠. ㅎㅎ

벌써 세컨드하우스가 마구마구 떠오릅니다.



강원도 1박 2일 여행 중 유일한 하룻밤을 묵은 강릉 연곡펜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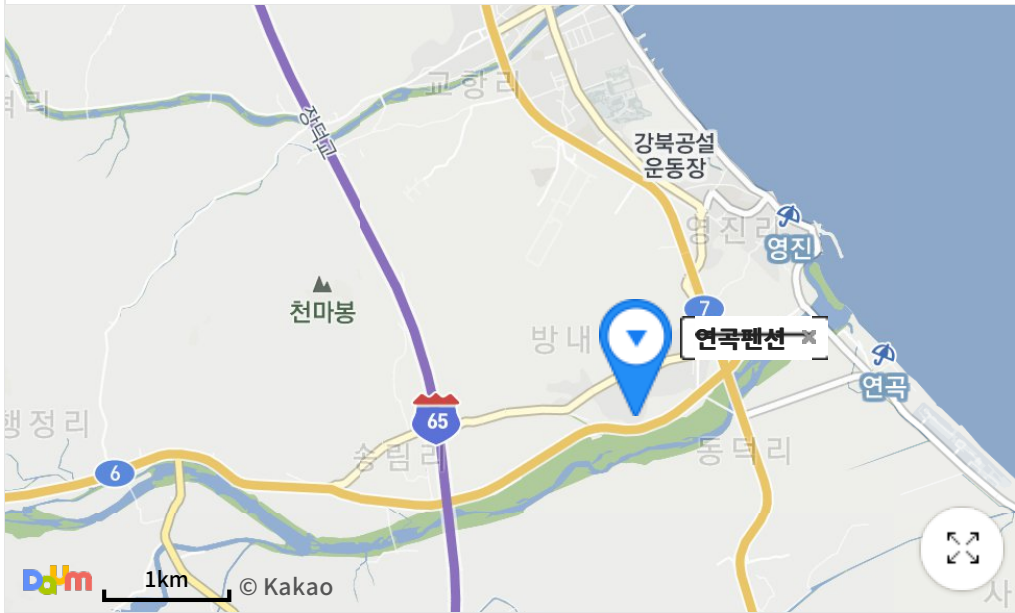
펜션에서 많이 지내보질 않아 장단점을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가족은 가격 대비 대단히 만족했던 곳이에요.
인근 영진해변은 일출도 좋지만 한때 광풍을 불러일으켰던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가 있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아침에 차로 5분 정도 나가면 되었거든요.

다음 편은 DAY2. 07 강릉 영진해변 일출입니다.

연곡펜션

강원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809

길찾기



(글 : 포토뉴스코리아 simpro)

트위터 <http://twitter.com/huhasim>

페이스북 <http://facebook.com/inseob.shim.7>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simpro61>



해찬에서 하는 일

- 태양광발전소 설계·시공(Rps)
 - 태양광발전소 유지보수업(모듈·인버터·구조물)
 - ESS 설계·시공(태양광발전 저장시스템)
 - 태양광발전소 중개 및 컨설팅
 - 가정용 태양광·업소용 태양광(3kw~10kw)
 - 전기 공사업
- ☎ 062-572-3633/010-3295-3633

07

(강원도 1박2일 여행)보름달같이 거대한 동해일출을 볼 수 있는 곳. 영진 해변

(강원도 1박2일 여행)보름달같이 거대한 동해일출을 볼 수 있는 곳. 영진 해변

2018.01.24 06:00

강원도 1박2일 여행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

광주에서 출발해 강원도 1박 2일 다녀오기!

DAY 2

동계올림픽 스키, 아이스하키가 열리는 강릉

7.강릉 영진해변 일출 - 8.영진해변 드라마 '도깨비'촬영지 - 9.강릉 오죽헌 - 9.강릉 선교장



07 강릉 영진 해변 일출

강릉 영진해변으로 동해 일출을 보러 나왔습니다.

펜션에서 차로 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강릉은 바닷가 어디서든 빼어난 일출을 자랑하죠.

막힘없는 동해가 있기 때문인데요, 영진해변 일출을 보기로 정한 것은

바로 여기에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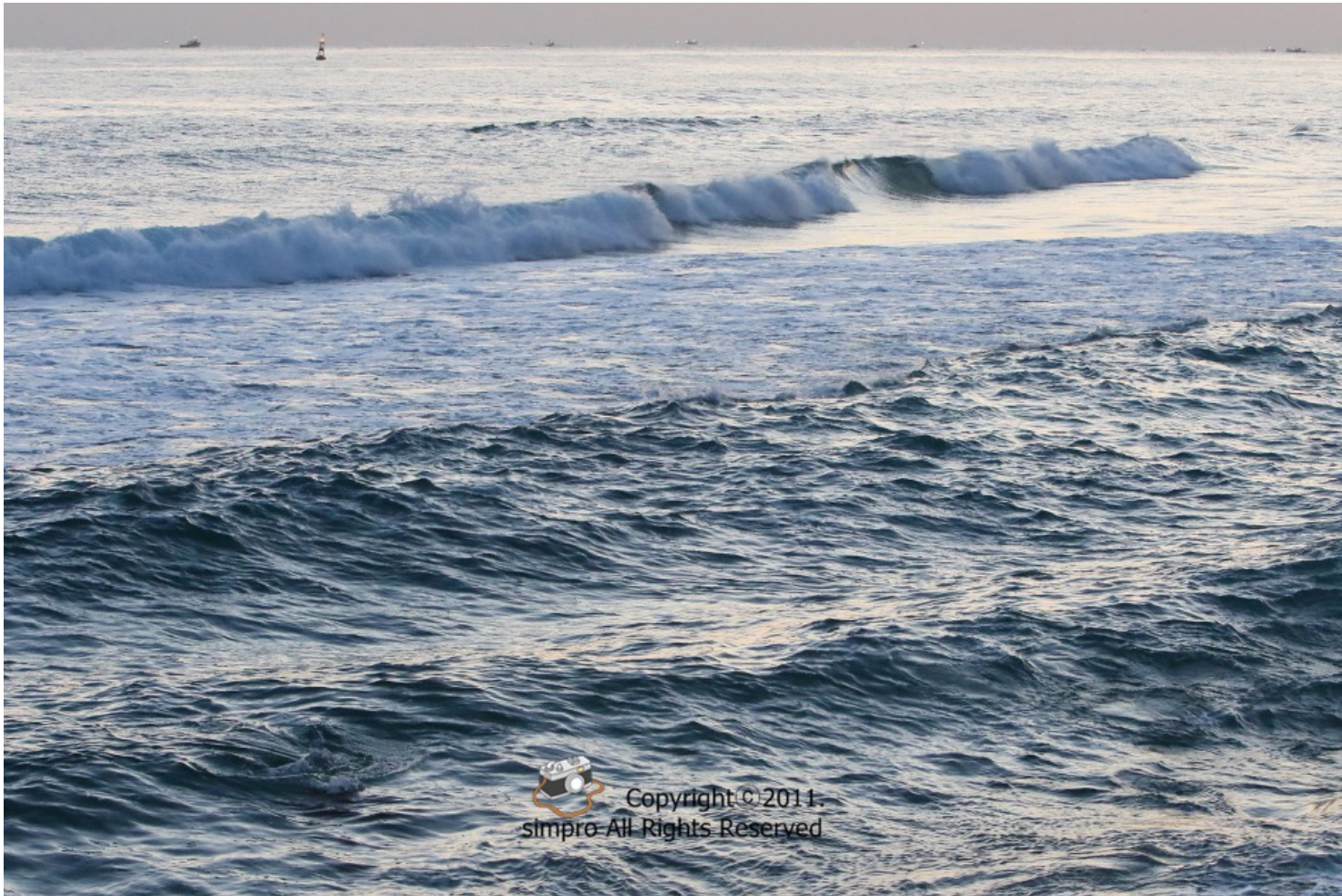
이날 일출은 대략 7시 30분 정도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 대략 세수하고 곤히 잠든 식구들 깨워 영진해변에 7시경 도착했어요.

얼마나 춥던지 둘은 해 뜨면 나온다고 따뜻한 차 안에서 꿈쩍도 않네요^^



삼각대를 거치해 놓고 20분 정도 기다리며 여기저기 찍어봅니다.
이번에는 동해 일출을 찍어보려고 700-200 아빠백통 렌즈를 가져갔거든요.
뭐 차로 이동하기에 딱히 들고 다니지는 않아 딱 이때만 써먹었네요.. ㅎㅎ



격랑이 일고 고깃배의 조명도 어두워집니다.



만선의 기쁨을 알리는 배와 이제 만선을 위해 나가는 배가 교차하네요.



동틀 무렵 하늘도 아름답죠.



먼 바다에 구름이 끼어 바다 위로 솟구치는 태양이 아니어 살짝 실망입니다.^^



그래도 이게 어딴니까?

전날 잘 때만 해도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 가득이었고 강릉도 구름 조금이었거든요.

그래서 내일 일출 보기 어렵겠다고 자포자기했는데, 새벽에 일어나 펜션 밖으로 나와보니 하늘에 별이 총총하더군요.

그래서 부리나케 나오게 된 것이죠.





구름 위로 치솟는 동해의 태양입니다.



실제로 보면 조그맣게 보이지만 역시 아빠백통의 위력은 대단하군요.

취재 나갈 땐 항상 오두막 2에 16-35를 끼우고 아빠백통은 7D MARK2에 끼우는데 200mm를 크롭 보디에 끼우니 환산 초점거리가 무려 320mm나 되었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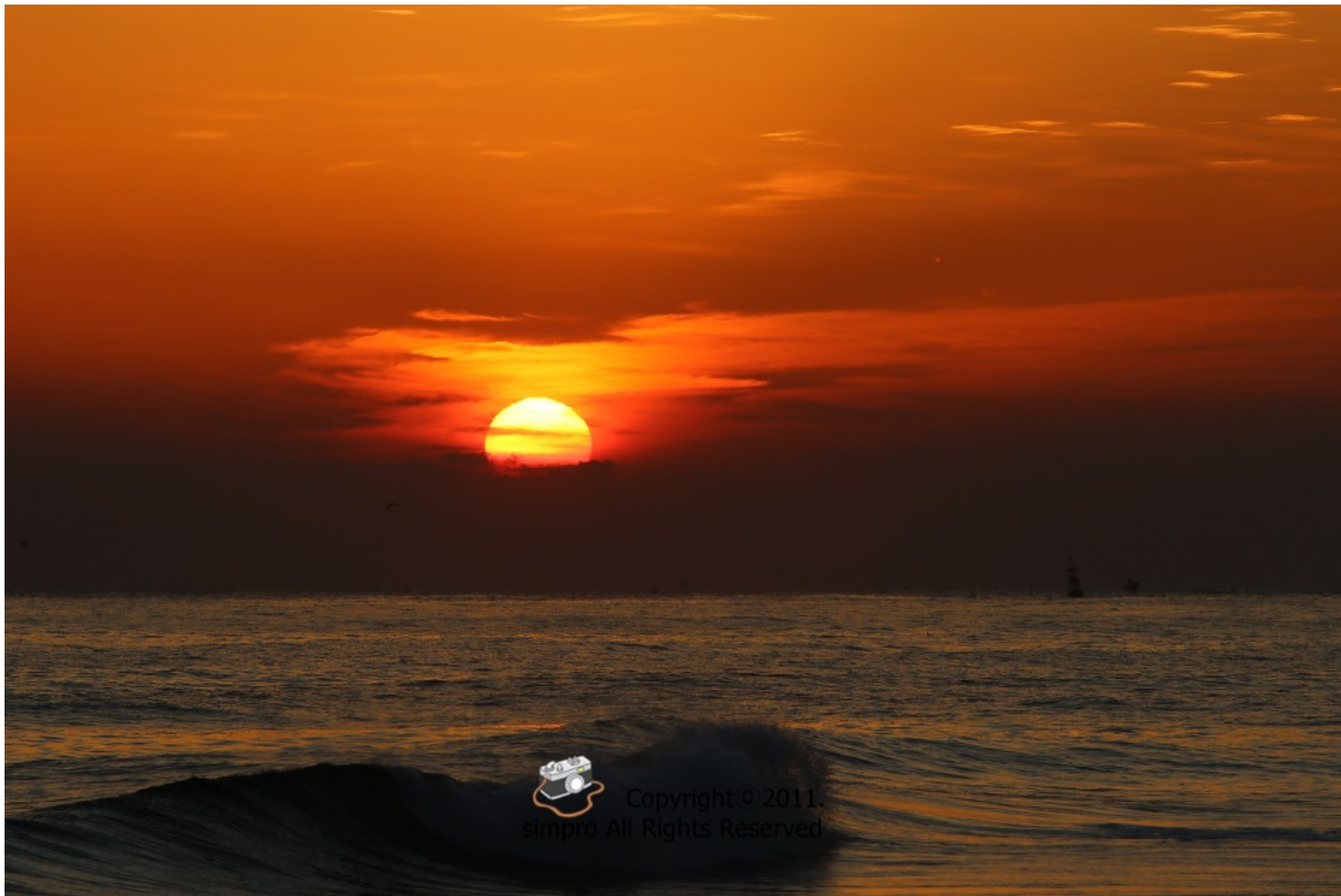
풀 프레임 보디로 백사 (100-400) 정도는 끼워야 되는데, 크롭보디에 끼우니 320mm로 보는 동해 일출입니다.



2016년 12월에 찍은 동해 일출은 당시 오두막 2에 24-105를 달아 아주 쪼그맣게 나왔는데, 이번엔 3배 넘는 초점거리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와 흡족합니다.



마치 보름달처럼 크게 보입니다.



Copyright © 2011.
simpro All Rights Reserved



파도가 밀려오고 갈매기가 날며 일출 아래로 조명을 밝힌 배가 지나가면 딱 좋겠다는 풍경입니다.



보통 후보정을 한다지만 필자는 후보정할 시간도 없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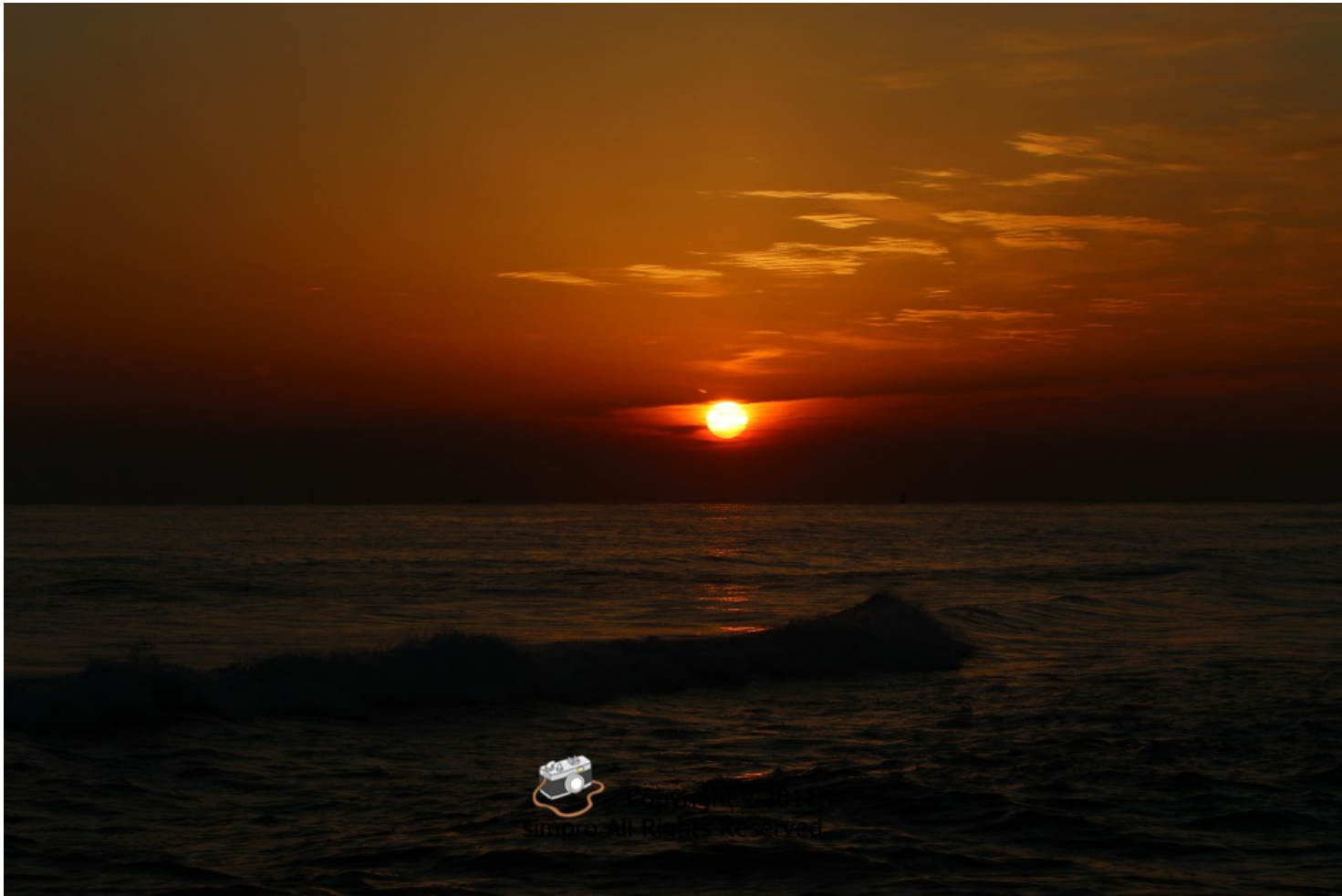








밝기를 -2스텝 정도 줬더니 마치 달처럼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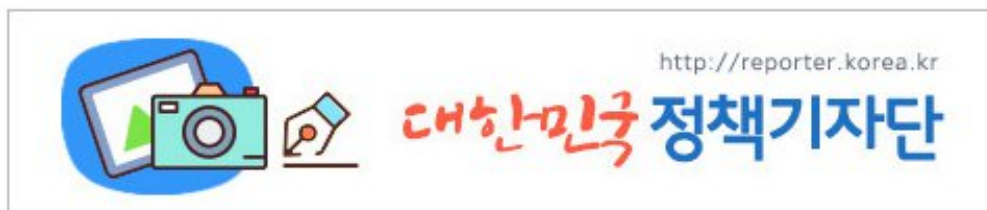


올해 들어 새해 첫날 광주 영산강에서 본 일출을 보고, 동해까지 와서 또 일출을 보는데요,
영원히 잊히지 않은 장면이 되었어요.

매일 뜨는 태양이지만, 의미를 부여하면 모두 다 다른 태양이죠.

한반도의 동쪽 끝에서 오늘을 밝혀줄 첫해를 보면서 광주로 돌아갈 때까지 재미있는 여행과 안전운전을 소망했습니다.

다음 편은 DAY2. 08 강릉 영진 해변 드라마 '도깨비'촬영지입니다.



영진해변

033-660-3868 | 강원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72-2

📍 길찾기



(글 : 포토뉴스코리아 simpro)

트위터 📧 <http://twitter.com/huhasim>

페이스북 📧 <http://facebook.com/inseob.shim.7>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simpro61>



해찬에서 하는 일

- 태양광발전소 설계·시공(Rps)
 - 태양광발전소 유지보수업(모듈·인버터·구조물)
 - ESS 설계·시공(태양광발전 저장시스템)
 - 태양광발전소 중개 및 컨설팅
 - 가정용 태양광·업소용 태양광(3kw~10kw)
 - 전기 공사업
- ☎ 062-572-3633/010-3295-3633

08

(강원도 1박2일 여행)영진해변 드라마 '도깨비'촬영지 히트다 히트!

(강원도 1박2일 여행)영진해변 드라마 '도깨비'촬영지 히트다 히트!

2018.01.26 06:00

강원도 1박2일 여행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

광주에서 출발해 강원도 1박 2일 다녀오기!

DAY 2

동계올림픽 스케이팅, 아이스하키가 열리는 강릉

7.강릉 영진해변 일출 - 8.영진해변 드라마 '도깨비'촬영지 - 9.강릉 오죽헌 - 10.강릉 선교장



08 강릉 영진해변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

영진해변에는 일출도 볼 수 있지만 특별한 장소이기도 하죠.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 중순까지 광풍을 불러일으킨 드라마 '도깨비'

평소 드라마를 잘 보지 않는 필자도 첫 편부터 보기 시작한 드라마인데요,

대박을 예상했는데 역시나 20.5% 시청률로 케이블 TV 드라마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네요.



케이블 TV 드라마가 대박신화를 쓰기 시작한 것은 바로 드라마 '미생'인데요, 시청률 8%를 기록했죠. 그다음인 '시그널' 12%였는데 '도깨비'가 단번에 20%대를 돌파해 버렸습니다. '도깨비'는 시청률 뿐만 아니라 브랜드 평판 순위에서도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Copyright © 2011.
simpro All Rights Reserved

줄거리는 도깨비라는 비현실 캐릭터를 앞세워 인간 신부가 필요한 도깨비가 인간들과 기묘한 동거를 시작하고 이어 나타난 기억상실증 저승사자와 그들 앞에 '도깨비 신부'라 주장하는 '죽었어야 할 운명'의 소녀라는 소재가 우선 판타직하구요,

현대와 과거를 넘나드는 사극과 현대극이 잘 어우러진 드라마로 캐나다까지 시공을 넘나드는 환상이 압권이었죠.



이 장면 기억나나요?

도깨비 김신 (공유)를 우연히 소환한 지은택(김고은)입니다.

케이크 초에 불을 붙인 다음 흑 불면 소환되는데요, 메밀꽃 한 다발이 키포인트죠.

날이 밝으면 주변에 꽃다발과 빨간 머플러도 빌려주는 곳이 있다는데

우린 너무 이른 아침에 나가 소품을 빌릴 수 없었네요.^^



대신 이렇게 긴 방사제를 걸어봅니다.
드라마 방영 당시 금요일 밤과 토요일 밤은 본방사수였는데요,
꿈에서도 도깨비가 돼 마구 날아다니는 꿈을 꿀 정도였습니다.



영진 해변에는 5개의 방사제가 있는데요, 두 번째 방사제가 촬영지입니다.

방사제란 해안의 침식이나 항만이 표사에 의해 알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구조물이라는데요, 쉬운 말로 해안의 모래가 파도에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다를 향해 직각으로 만든 독인데요, 해류에 의해 실려가는 모래를 가두어 침식을 막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 방사제에서 동해 일출의 기를 마음껏 받는 중전마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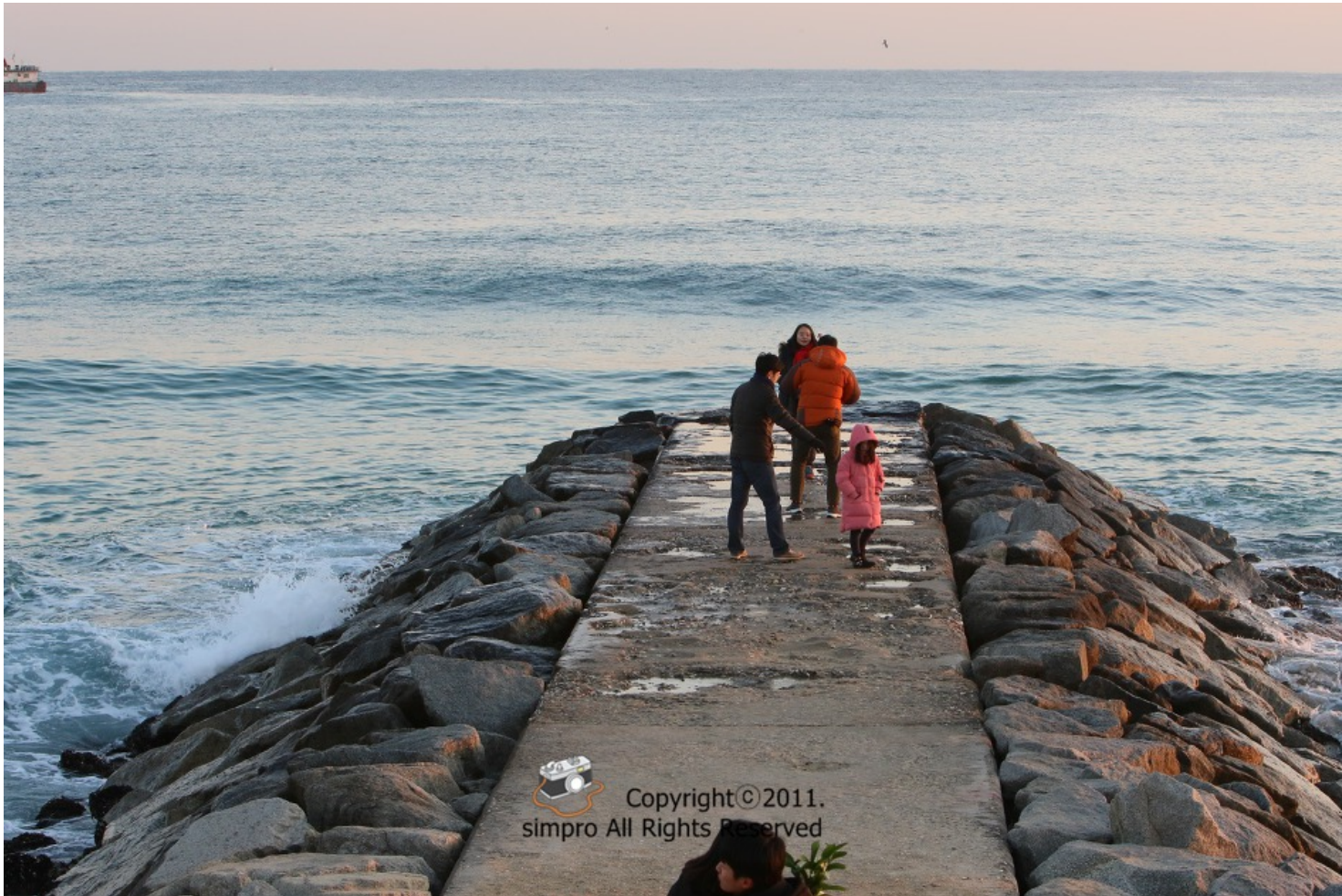


16밀리 화각으로 보면 태양이 얼마나 조그맣게 보이는지 알 겁니다.^^





방사제 끝에 한무리의 관광객들이 아침부터 진을 치고 있는데요,



일출도 보고 '도깨비'의 감흥도 살리고...



원래 중전마마와 필자가 서서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라고 읊어야 하는데 말이죠.. ㅎㅎ



자세 좀 잡으라고 했더니 ㅋㅋ
이리 합니다.



하려면 제대로 좀 하시지...



즉시 주인공을 교체해 버립니다.



나는 좀 더 고전적으로.. ㅎㅎ



가슴이 땡 뚫리듯 시원하고 상쾌합니다.



올해 졸업하는 아드님도 당연하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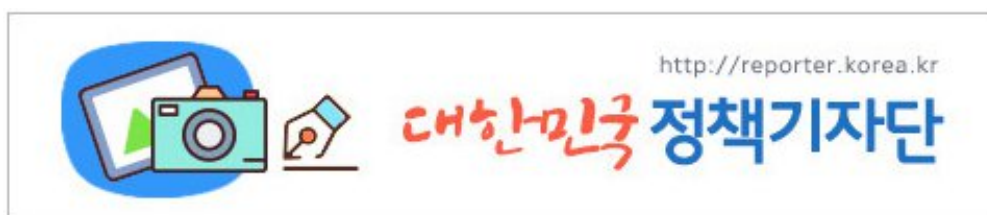
거기에 더해 자신의 앞날이 이렇게 밝게만 해달라고 소망했겠죠.





동해 일출도 보고 드라마 '도깨비'의 감흥도 살린 강릉 영진 해변.
강릉 여행의 최고 히트다 히트! 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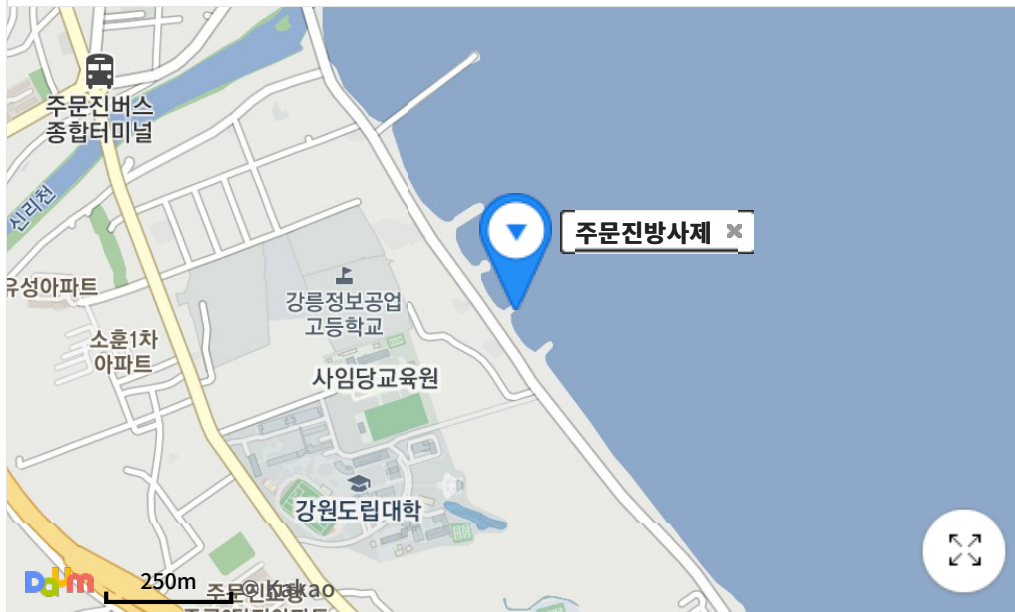
다음 편은 DAY2. 09 강릉 오죽헌입니다.



주문진방사제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길찾기



(글 : 포토뉴스코리아 simpro)

트위터 <http://twitter.com/huhasim>

페이스북 <http://facebook.com/inseob.shim.7>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simpro61>



해찬에서 하는 일

- 태양광발전소 설계·시공(Rps)
 - 태양광발전소 유지보수업(모듈·인버터·구조물)
 - ESS 설계·시공(태양광발전 저장시스템)
 - 태양광발전소 중개 및 컨설팅
 - 가정용 태양광·업소용 태양광(3kw~10kw)
 - 전기 공사업
- ☎ 062-572-3633/010-3295-3633

09

(강원도 1박2일 여행)강릉 오죽헌에서 신사임당의 참교육을 느껴보다.

(강원도 1박2일 여행)강릉 오죽헌에서 신사임당의 참교육을 느껴보다.

2018.01.29 06:00

강원도 1박2일 여행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

광주에서 출발해 강원도 1박 2일 다녀오기!

DAY 2

동계올림픽 스키, 아이스하키가 열리는 강릉

7.강릉 영진 해변 일출 - 8.영진해변 드라마 '도깨비'촬영지 - 9.강릉 오죽헌 - 10.강릉 선교장



09 강릉 오죽헌

영진 해변에서 동해 일출도 보고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에서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라고 당시 추억을 회상해 봤는데요, 다시 연극 펜션으로 돌아와 아침식사를 하고 다음 여행지인 강릉 오죽헌과 선교장으로 갑니다.

아침식사는 광주에서 출발 당시 준비했는데요, 항상 아침식사로 먹는 콘플레이크, 브라질너트, 사과와 우유를 미리 준비했죠.

덕분에 빠른 식사를 하고 출발합니다.



오죽헌은 신사임당의 친정집으로 이율곡 선생이 태어난 곳이지만, 가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제각, 문성사, 율곡기념관, 향토 민속관 등이 함께 있어 규모가 상당하더군요. 나을 때 보니 중국 방송국에서도 리포터와 함께 촬영하고 있고 국내 방송사에서도 대규모 촬영단이 들어가더군요.



입구에 있는 울곡 이이 동상인데요, 어머니인 신사임당 동상과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울곡 이이는 오천 원짜리 화폐 인물로 장원급제만 아홉 번 한 인재 중의 인재였는데요,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 승정원을 거친 학자이자 정치인으로 임진왜란 전에 '십만 양병설'을 주장한 분이죠. |
 결국 당파싸움에 지쳐 관직을 벗어던지고 고향으로 돌아와 후진 교육에 여생을 보낸 분으로
 퇴계 이황과 쌍벽을 이루는 학자로 현재까지 칭송받는 분인데요,
 이황은 천 원짜리, 울곡은 오천 원, 신사임당은 무려 오만 원짜리 화폐 주인공입니다.^^



MBC 드라마 '사임당 빛의 일기' 기념석엔 주연 배우들의 핸드프린팅이 되어 있는데요,
좌측이 신사임당 역인 이영애, 우측이 이겸 역인 송승헌의 핸드프린팅입니다.
중전마마와 아드님 두 주인공이 된 느낌이 든다고요? ㅋ



자경문을 들어서면 오죽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정면으로 울곡기념관, 오른쪽이 오죽헌입니다.



오죽헌에 들어섭니다.

오죽헌은 단청이 되지 않은 민가이고 율곡 선생의 영정을 모신 문성사는 사당이죠.



오죽헌 앞에 있는 배롱나무는 무려 600살이나 된다고 합니다.

울곡 이이가 오죽헌에서 1536년에 태어났으니 지금부터 480여 년 전인데요, 신사임당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다는 것이죠.

오죽헌의 역사를 한눈에 꿰고 있는 배롱나무는 지금도 꽃을 피운다고 하니 기왕이면 꽃 피는 시기에 가도 좋겠어요.



오죽헌은 정면 3칸, 측면 2칸 팔작지붕으로 전형적인 양반가옥으로 보물 제165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안채와 사랑채는 더 안으로 들어가야 하니 이곳은 별채로 보입니다.

옛날엔 부인이 자녀를 낳을 땐 안채에서 낳지 않고 별당이나 별채에서 낳았다고 하죠.

오죽헌은 조선 중종 때 건축되었다는데요, 건축 시기는 알 수 없지만, 한국의 주택 건축 중 가장 오래된 건물이라고 합니다.

오죽헌의 소유권은 참 많이 옮겨 다녔다는데요, 원래 최응현의 집으로 둘째 사위 이사온에게 상속되었다가 다시 딸에게 상속되었으며, 외손주 권처균에게 다시 상속되었다는데요, 권처균이 집 주위에 검은 대나무가 무성한 것을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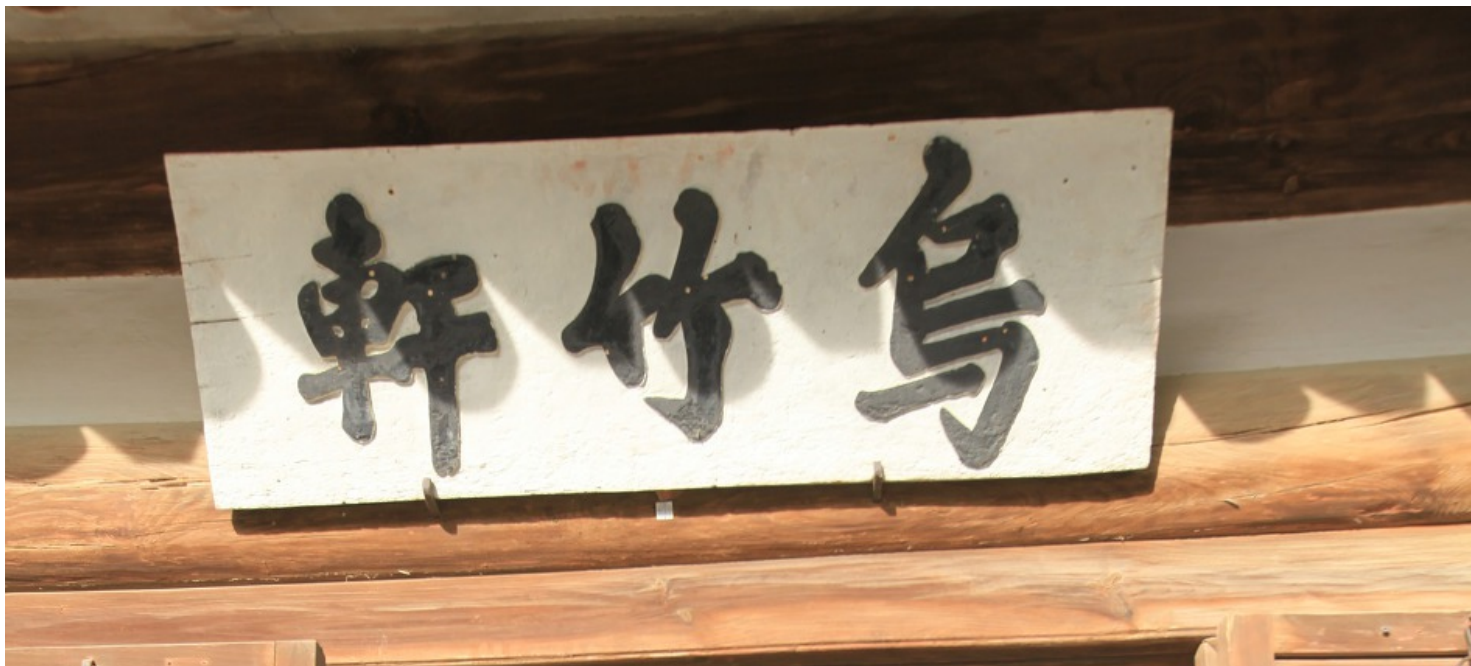
자신의 호를 오죽헌(烏竹軒)이라 지었는데, 후세에 집 이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측이 몽룡실로 율곡 이이가 탄생한 곳입니다.



지금은 신사임당의 영정이 봉안되어 있네요.





오른쪽 두 칸이 온돌 방인데 비해 좌측 한 칸은 대청마루인데요, 좌우로 온돌방에 가운데 대청마루가 있는 것은 더러 봤는데

이렇게 상하방처럼 생긴 양반가옥은 처음 봅니다.



울곡 선생의 사당에 향을 피우고 그분의 추모해 봅니다.

문성사 현판은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이라고 하는데요, 1976년 오죽헌 정화사업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오죽헌을 방문해 직접 쓴 글씨를 각하한 것이라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8년간 집권하면서 전국 각처에 1200여 점이나 되는 친필 휘호를 남겼다는데요, 광화문 현판 교체는 유명한 사건이죠.

최근에는 현충사 현판도 유족이 박정희 친필 현판이라고 난중일기 전시를 철회하겠다고 해 사회적 이슈가 되었는데요, 광화문 앞 세종로 이순신 장군 동상에 새겨진 충무공 이순신 장군 상도 박정희 친필이고 행주산성의 행주대첩비와 충장사 현판 등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고 해요.



안채에 들어서기 전 바깥채도 있군요.



사랑채와 안채가 보입니다.

원래 사랑채와 안채는 툇마루로 연결되었다는데요, 정화사업 때 분리했다네요.

본디 건물은 제 모습을 유지해야 제격인데요, 관람의 편의성 때문이었을까요?



정화사업을 했다고 하니 이 건물들은 당시 새롭게 지은 것으로 보이네요.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간 날이 일요일 오전이지만, 관리인이 일찍 출근해 곳곳을 쓸고 닦고 청소하고 있더군요.









울곡 선생의 초상화도 봉안되어 있고...



너무 깨끗해 기분 좋은 오죽헌 나들이였습니다.

바로 옆에는 어제각이라는 작은 사당이 있는데요, 정조가 율곡이 어린 시절 사용하던 벼루와 책을 보관시키기 위해 지은 사당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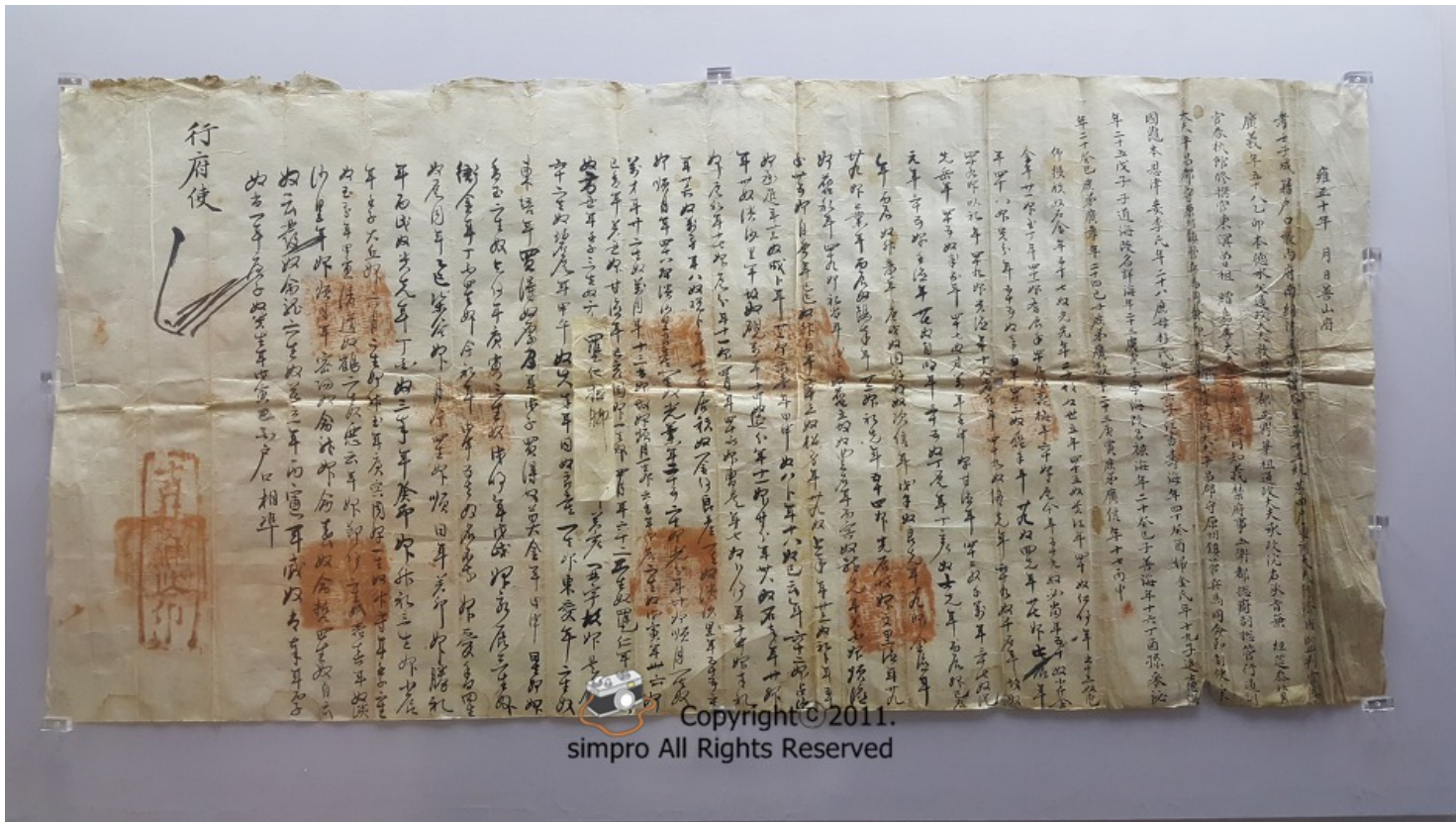
벼루 뒷면에 학문을 찬양하는 글을 새겨 보관하라고 명했다는데요, 벼루 왼쪽이 명령인가 봅니다.^^



울곡기념관에는 오죽헌과 관련된 인물들과 유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다 읽고 지나가기엔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대충 읽고 가지만 뜻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신사임당 동상입니다.



겨레의 참스승 율곡 이이를 낳고 기른 신사임당.

딸만 다섯인 가정의 둘째 딸로 태어나 효심이 매우 깊었다고 합니다.

시집 가자마자 돌아가신 부친을 위해 오죽헌에 머물며 3년 상을 치렀다고 하며 시가로 돌아간 뒤에도 강릉을 오가며 홀로 남은 모친을 보살폈다고 합니다.

율곡 이이를 포함 일곱 자녀를 둔 신사임당은 자녀를 엄격히 가르쳤는데요, 그 무엇보다 사람의 도리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맏딸은 그림과 글씨, 시에 능통해 작은 사임당이라 불렸으며 셋째 아들 율곡은 말할 나위 없고, 명필로 명성이 자자했던 막내 이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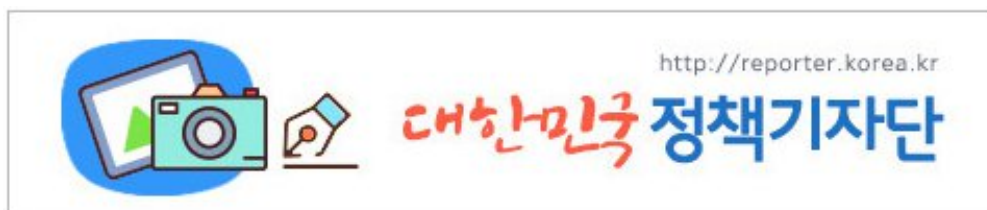
모든 자녀들이 어머니를 스승으로 훌륭하게 성장한 것이죠.



그런 사임당으로부터 기를 좀 받고자 하는 중전마마.

큰 아이도 잘 키웠고 둘째도 잘 키우고 있으니 김 사임당이라 불러줄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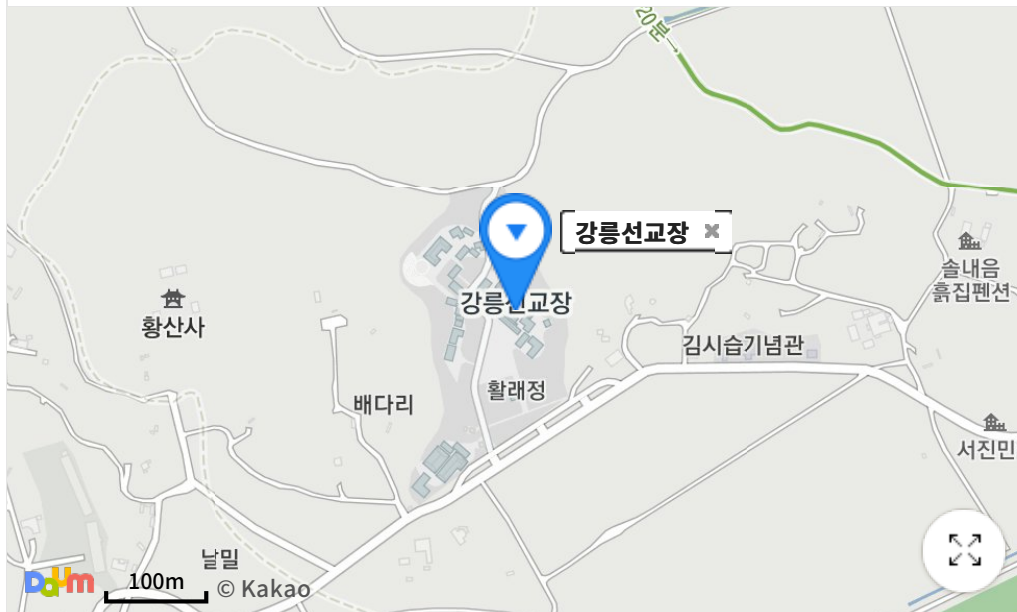
다음 편은 DAY2. 10 강릉 선교장입니다.



강릉선교장

033-646-3270 | 강원 강릉시 운정동 431

📍 길찾기



(글 : 포토뉴스코리아 simpro)

트위터 📧 <http://twitter.com/huhasim>

페이스북 📧 <http://facebook.com/inseob.shim.7>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simpro61>



해찬에서 하는 일

- 태양광발전소 설계·시공(Rps)
- 태양광발전소 유지보수업(모듈·인버터·구조물)
- ESS 설계·시공(태양광발전 저장시스템)
- 태양광발전소 중개 및 컨설팅
- 가정용 태양광·업소용 태양광(3kw~10kw)
- 전기 공사업

☎ 062-572-3633/010-3295-3633

10

(강원도 1박2일 여행)관동 제일의 명가선교장. 그저 입이 떡 벌어지더이다.

(강원도 1박2일 여행)관동 제일의 명가 선교장. 그저 입이 떡 벌어지더이다.

2018.01.31 06:00

강원도 1박2일 여행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

광주에서 출발해 강원도 1박 2일 다녀오기!

DAY 2

동계올림픽 스키, 아이스하키가 열리는 강릉

7.강릉 영진 해변 일출 - 8.영진해변 드라마 '도깨비'촬영지 - 9.강릉 오죽헌 - 10.강릉
선교장



10 강릉 선교장

강릉에서의 마지막 일정입니다.

가볼 곳도 많고 즐길 것도 많은 강릉이지만, 2016년 12월 동계올림픽 테스트 이벤트 때 1박 2일로 찾은 강릉이었기에 이번엔 그때 가보지 못한 오죽헌과 선교장은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선교장을 찾는데 네비게이션이 선교장 후문쪽으로 안내 해 한번 알바를 했습니다.

또 다시 네비양이 후문쪽으로 안내하길래 그냥 지도와 이정표만 보고 갔습니다.

오죽헌과 선교장은 비교적 가까운데 있고 선교장 이후 정선으로 이동해야 했기에 동선도 맞았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상당한 크기의 연못이 맞이합니다.

연못에 기둥을 심고 그 위에 지은 건물인데 활래정(活來亭)이라는 선교장의 별당 중 하나입니다.

멀리 보이는 안채와 격리된 곳에 있어 지금으로 치면 귀한 손님을 맞는 영빈관 정도로 보입니다.

이곳까지 산책을 겸한 나들이도 잦았을 것으로 보이네요,

열화당은 순조 16년인 1816년에 이후가 건립했으며 1906년 이후의 증손 이근우가 중건했다고 합니다.



집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보통 힘깨나 쓰던 양반가문의 집이 99칸이라는데, 선교장은 모두 합해 300칸이 넘는다고 합니다.

세종의 형인 효령대군의 11대 손인 무경 이내번이 1700년대 초반 처음 지어 10대에 이르면서 증축해 현재에 이르렀는데요,

300년 넘도록 원형을 그대로 유지한 한국의 대표적인 양반가옥입니다.

필자도 수많은 고택을 들어다녔지만 이토록 거대한 가옥은 본 적이 없습니다.

옛날엔 경포호수를 가로질러 배로 다리를 만들어 건너다녔기에 선교장이라 이름지었다고 합니다.

만석꾼이었던 집의 곳간에는 항상 곡식이 넘쳐 흉년에는 이웃에게 곡식을 나눠주기도 한 진정한 부자였다는데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인묵객들이 머물렀을까요.



안채에 들어가기 전 오른쪽에 있는 외별당채입니다.
입구를 막아 놓았군요.



장독이 있는 것으로 봐 전주 이씨 완풍종가 후손이 거주하고 있는 살림집으로 보입니다.



굴뚝들이 가지런하게 보이는데요, 행랑채에도 모두 불을 땀다는 것이죠.



이제 안채로 들어가 봅니다.

선교유거(仙橋幽居) '신선이 살만한 높은 곳에 있는 거처에서 그윽히 머무르다'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shots을 대문을 들어서면 보이는 풍경.
문이 사방으로 나 있습니다.



동별당(東別堂)은 비교적 최근인 1920년에 지었다는데요, 주로 주인이 거처하며 집을 찾아오는 손님이나 친척을 접하는 곳입니다.

그래도 100년 가옥인데요. 높은 석축을 쌓아 아래서 보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안채주옥입니다.

1748년에 지은 선교장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입니다.

우측으로 동별당, 좌측으로 서별당을 거느린 안채네요.





안채에서 보면 ㄷ자 형태로 구성되어 있네요.



안채 뒤쪽으로는 사당이 있습니다.

선교장을 이룬 집안 선조들의 신위를 모신 곳이라고 합니다.





안채와 이웃한 외별당채입니다.



문이 몇개나 되는지 세다가 잊어버렸습니다.^^

검색해 보니 12개나 된다고 하네요.



문간채와 행랑채가 쪽 이어집니다.

행랑채는 각자 뒷마루가 있군요.

일제 강점기까지만 해도 이곳에서 연못이 있는 열화당까지 ㄴ자로 행랑채로 이어졌다는데요,
집 둘레를 돌아가며 담장 역할도 했다 합니다.



행랑채 문을 열어보니 방과 방 사이엔 모두 문으로 연결되어 있군요.
문을 모두 열어 놓으면 대 강당처럼 보이겠어요.



행랑채에는 곳간과 마굿간도 있고 하인들이 살림하는 부엌도 있었다고 해요.
대문옆에는 하인들의 살림방도 있었다고 합니다.



집이 얼마나 크고 각 건물마다 이름이 붙어 있는데 다 모르겠더라고요^^



서별당(西別堂)은 한국전쟁 때 소실된 것을 1996년 복원했다는데요, 선교장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네요.



연지당(蓮池棠)은 원래 열화당으로 통하는 통로와 공간이었다고 해요.
집안 살림을 돕던 여인들의 거처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하도 문이 많아서 저곳을 내가 들어갔는지 헛갈리더라고요^^



안채 뒷쪽에 있는 초가.



그리고 강릉을 대표하는 검은 대나무.







열화당(悅話堂)은 남자 주인의 전용 사랑채라고 합니다.

1815년에 지었다는데 건물 앞에 넓은 차양을 둔 것이 특이한데요, 이 양식은 조선말기 러시아식 건축물의 특징으로 러시아 공사관에서 지어주었으나 현대에 이르러 다른 재질로 바꿔놓은 것을 원상복구했다고 합니다.

옛것이 허름해도 당연히 원상복구해야죠.



선교장처럼 거대한 저택도 처음보지만, 이런 양식도 처음 봐 신기하기만 합니다.



이제 선교장을 나와 다른 곳을 빙 둘러봅니다.

선교장의 부속건물로 방앗간도 있고 곡간채도 있는데요, 민속자료전시관, 야외공연장 등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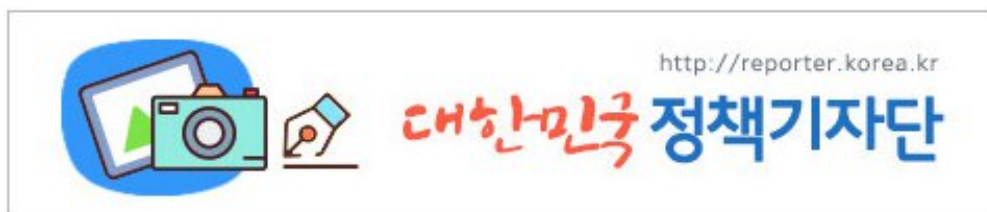
전통문화체험관도 있는데요, 선교장은 한옥스테이도 하더군요.

고택체험을 통해 옛 선조들의 생활과 풍습을 체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어 많은 사람이 찾는다고 해요.

입장료가 5,000원이나 되지만 전혀 아깝지 않은 고택둘러보기였습니다.

역시 관동 제일명가 다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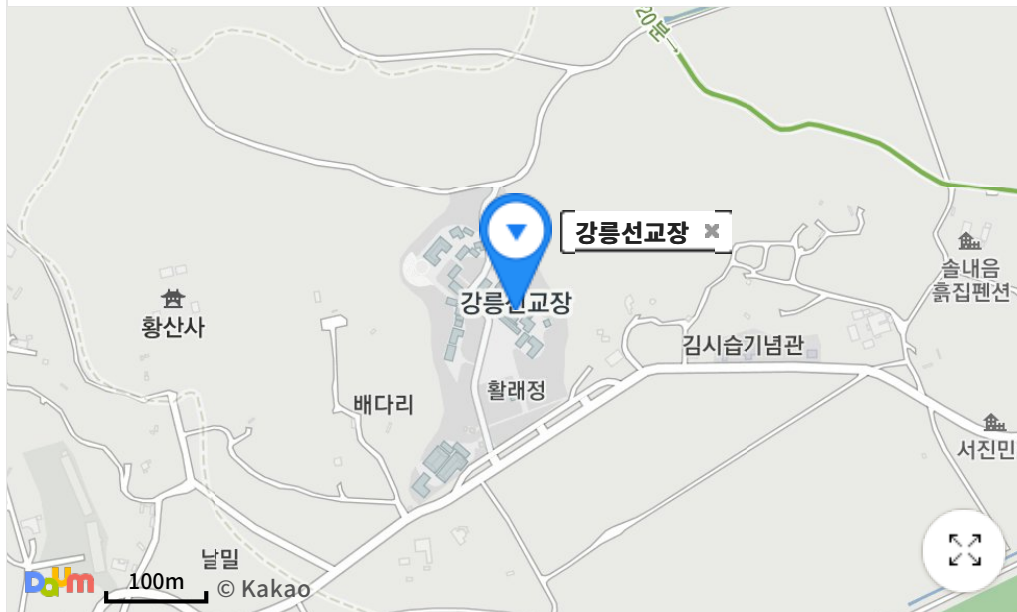
다음 편은 DAY2. 11 정선 아우라지 돌다리입니다.



강릉선교장

033-646-3270 | 강원 강릉시 운정동 431

📍 길찾기



(글 : 포토뉴스코리아 simpro)

트위터 📧 <http://twitter.com/huhasim>

페이스북 📧 <http://facebook.com/inseob.shim.7>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simpro61>



해찬에서 하는 일

- 태양광발전소 설계·시공(Rps)
- 태양광발전소 유지보수업(모듈·인버터·구조물)
- ESS 설계·시공(태양광발전 저장시스템)
- 태양광발전소 중개 및 컨설팅
- 가정용 태양광·업소용 태양광(3kw~10kw)
- 전기 공사업

☎ 062-572-3633/010-3295-3633

11

(강원도 1박2일 여행)정선 아우라지 돌다리에서 즐긴 잠깐의 산책

강원도 1박2일 여행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

광주에서 출발해 강원도 1박 2일 다녀오기!

DAY 2

동계올림픽 알파인 경기가 열리는 정선

11. 아우라지 돌다리 - 12.정선 5일장 - 13. 병방치 스카이워크 - 14.화암동굴릉 -
15. 화암약수



11 정선 아우라지 돌다리

이제 강릉을 나와 정선으로 이동합니다.

정선에서도 올림픽경기가 열리는데요, 알파인경기로 활강, 회전, 대회전 경기가 열리죠.

가파른 경사면을 빠르게 질주해 보는 사람들도 스틸 넘칩니다.

경기장은 올림픽을 대비해 신축했다는데요, 경기가 끝나면 산림생태복원사업을 통해 전면 복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축당시 부터 말이 많았지만 어차피 개발되었기에 사후 활용방안을 더 검토해 볼 필요도 있을 겁니다.



원래 계획에는 없었지만 정선 아우라지 돌다리를 보러 왔습니다.

정선으로 가는 길에 살짝 갔다 오면 되었거든요.

아우라지 공원은 여기서 조금 더 가야 하는데요, 아우라지 총각상, 처녀상이 서로 마주하고 있다던데 시간관계상 거기까지 들르긴 무리여서 휴식을 겸해 돌다리만 보고 갑니다.



아우라지란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인 정선아리랑의 발상지라고 해요.

대관령면을 관통하는 송천과 삼척에서 발원한 골지천이 합류되어 '어우러진다'하여 아우라지라고 불렀다고 해요.



멀리 초승달 모양의 교각 있는 곳이 아우라지 공원.

이 주변으로 둘레길도 있던데 시간이 넉넉했으면 산책하면 딱 좋았을 건데...



이 돌다리만 건너봅니다.



옛날부터 있던 다리는 아니구요, 2000년대 초반 지었다가 홍수로 떠내려간 것을 다시 복원했다고 합니다.



정선읍을 가려면 왼쪽 보이는 다리에서 좌회전해야 합니다.
잠시 차를 멈춰 피로도 풀고 운동도 할겸 돌다리를 건너봅니다.



Copyright © 2011.
simpro All Rights Reserved



길기는 하지만 무서울 정도는 아닌데, 물이 불어나면 살짝 겁날 것 같아요.^^



중전마마가 다시 정선의 기를 받습니다.



요가를 1년 넘게 하고 있는데 요가촬영하나요?



돌틈 사이로 새집도 보이고...





이런 자세도 있나요?

큰아들은 차에서 땃실신하고 있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ㅎㅎ



살얼음 낀 강물 얼음결정이 아름답더군요.



아우라지 공원을 제대로 즐기려면 1시간 정도 더 투자해야 하는데요,
 정선 5일장에 들러 점심먹고 병방치 스키이워크, 화암동굴 등을 둘러보고 광주까지 내려가야 하는 관계로
 아쉽지만 아우라지 돌다리로 만족하고 갑니다.
 하지만 정선만 여행한다면 꼭 아우라지 공원에서 아우라지 총각과 처녀의 슬픈 전설을 알아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정선아라리 전설

남한강을 사이에 두고 버드내골 처녀와 여랑리 총각 사이에 벌어졌던 비극적인 사랑을 담고 있는 것이 정선아라리이다.
 강을 사이에 두고 사랑에 빠진 처녀 총각은 만나기로 약속한 전날 큰비가 오는 바람에 만날 수 없었다. 이 일로 총각은
 뗏목을 타고 한양으로 가 버리고, 처녀는 너무 슬픈 나머지 아우라지 물 속에 몸을 던졌다는 전설을 갖고 있다.

다음 편은 DAY2. 12 정선 5일장입니다.



<http://reporter.korea.kr>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아우라지

033-562-4301 | 강원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186-1

길찾기



(글 : 포토뉴스코리아 simpro)

트위터 <http://twitter.com/huhasim>

페이스북 <http://facebook.com/inseob.shim.7>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simpro61>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 전기공사업



해찬에서 하는 일

- 태양광발전소 설계·시공(Rps)
 - 태양광발전소 유지보수업(모듈·인버터·구조물)
 - ESS 설계·시공(태양광발전 저장시스템)
 - 태양광발전소 중개 및 컨설팅
 - 가정용 태양광·업소용 태양광(3kw~10kw)
 - 전기 공사업
- ☎ 062-572-3633/010-3295-3633

12

(강원도 1박2일 여행)정선 5일장에서 먹어본 콧등치기, 올챙이국수, 곤드레밥

강원도 1박2일 여행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

광주에서 출발해 강원도 1박 2일 다녀오기!

DAY 2

동계올림픽 알파인 경기가 열리는 정선

11. 아우라지 돌다리 - 12.정선 5일장 - 13. 병방치 스카이워크 - 14.화암동굴릉 -
15. 화암약수



12 정선 5일장

정선 아라리 돌다리에서 잠깐의 휴식을 한 후 정선5일장에 들렸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딱 정선 5일장이 열리고 있는데요, 2,7일장이더군요.

특이한 것은 매주 토요일에도 5일장이 열린다는 것인데요, 장을 현대식으로 꾸민 다음부터라고 해요.



처음엔 옛날 그대로의 재래식 5일장있다는데요,정선군이 철도와 연계한 정선 5일장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1999년 서울 청량리역에서 '정선 5일장 관광열차'가 운행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해요.



1999년 정선 관광객이 6만 3천여 명이었는데 2003년 8만여 명으로 늘었고 경제적 효과도 27억여 원에서 48억 여원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정선 5일장이 서는 날에는 3개 관광코스를 도는 시티투어버스를 운행했다는데요, 최근 평창올림픽을 맞아 서울에서 강릉까지 운행하는 경강선 KTX와 연계한 정선시티투어 관광상품도 개발했다고 해요. 묘하게도 필자가 가는 코스가 시티투어 코스와 같더라구요.

특히 식당에서도 시티투어 버스 관광객들을 만났거든요.



정선토산품외에 전국 각지에서도 토산품이 모이는 정선 5일장은 사계절 특색있는 나물들이 나오는데요, 겨울에는 매밀전병, 옥수수술 등이 인기라고 합니다.



정선시티투어는 성인 10,000원, 중.고생 8,000원, 초등생 5,000원인데요,
입장료와 체험료는 별도이며 유아와 이름이 '정선'인 사람은 무료라고 합니다.^^



시장구경도 밥부터 먹고라지만, 시장구경부터 하고 밥먹습니다.



각종 전을 지지고 볶는 집으로 시티투어 관광객이 들어가길래 따라 들어갔죠.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북적북적...
겨우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각자 취향에 맞게 음식을 시키는데요, 강원도까지 왔으니 강원도 특색이 물씬 풍기는 음식을 주문해 봅니다.



모듬전부터 시켰는데요, 메밀부침, 메밀전병, 장떡, 수수부꾸미, 녹두전, 모듬전 등 골고루 맛봅니다.



아드님은 곤드레밥.



난, 콧등치기



중전마마는 올챙이국수입니다.





곤드레밥을 먹는 아드님 왈 '와. 몸이 마구마구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ㅋㅋ

올챙이 국수를 먹는 중전마마 왈 '어머 진짜 올챙이 처럼 생겨 징그러워요..ㅋㅋ 그리고 숟가락으로 떠먹는 국수도 처음 이어 신기신기'

콧등치니는 이름이 하도 웃겨서 시켰는데요, 감자옹심이와 메밀국수를 쇠고기 육수에 넣어 끓인다고 해요.

감자옹심이는 감자를 갈아 거른 건더기와 가라앉은 앙금을 섞어 소금 간해 새알 크기로 만든 것을 감자옹심이라고 한다네요.

콧등치기는 국수가락이 하도 역세어서 먹을 때 콧등을 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뜨거울 때 먹으니 땀이 코에 송글송글 맺힌다고 해서

'콧등튀기'라고도 부른답니다.



강원도에 와서 머리털 나고 처음 들어본 메뉴들을 보니 약간 멘붕이 오더군요^^

뭘 먹어야 할지 몰라 골골구 시켰는데요, 맛도 그만이더군요.ㅎ

지난해 12월 동창회 산악회 정기총회 때 시상금으로 받은 온누리상품권 14만원이 있었는데

밥값도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되더군요.^^ 나머지 중전마마가 곤드레나물 등을 사는데 다 지출해 버립니다.ㅋ



정선 5일장은 올림픽 기간에도 당연히 열리죠.

정선으로 알파인 경기 보러 온 날이 2일이나 7일, 12일, 17일, 22일, 27일이면 꼭 들르시구요, 토요일에도 들르면 장이
섰을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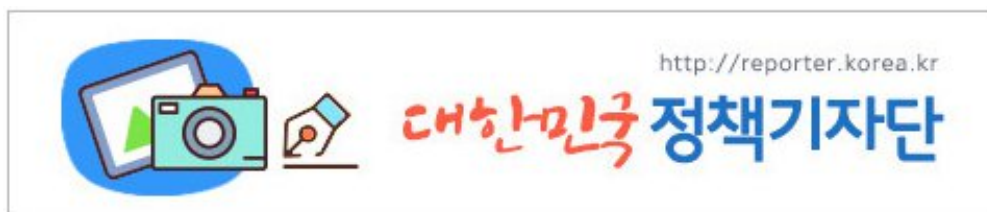


정선읍을 가로지르는 조양강입니다.

주차장에서 본 모습인데요, 강이 퐁퐁 얼었네요^^

설마 이곳에서도 얼음낚시 같은 것은 하지 않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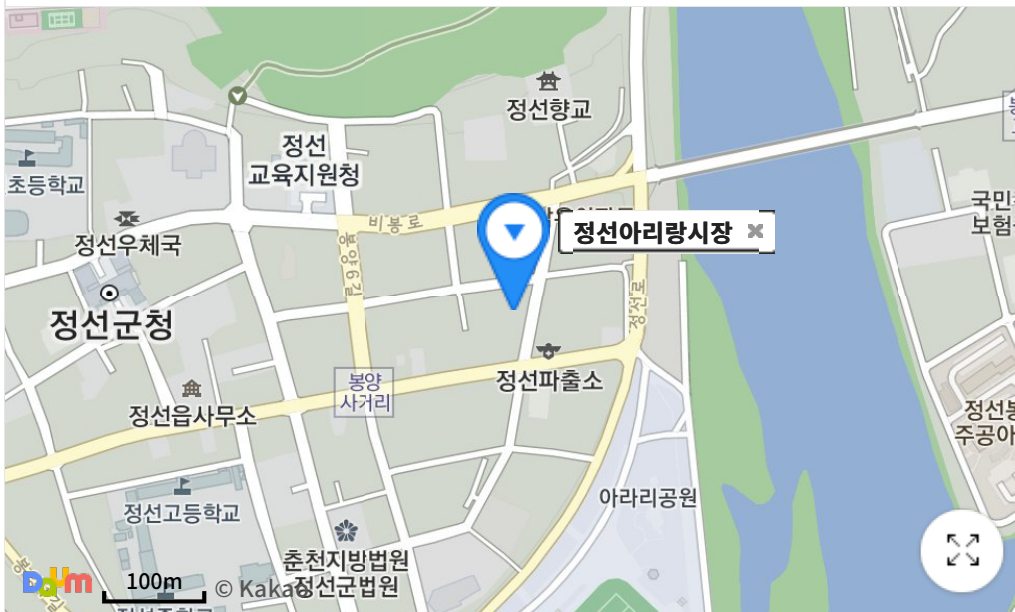
다음 편은 DAY2. 13 정선 병방치 스카이워크입니다.



정선아리랑시장

033-563-6200 | 강원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349-20

길찾기



(글 : 포토뉴스코리아 simpro)

트위터 <http://twitter.com/huhasim>

페이스북 <http://facebook.com/inseob.shim.7>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simpro61>





(주)해찬ENC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 전기공사업

해찬에서 하는 일

- 태양광발전소 설계·시공(Rps)
- 태양광발전소 유지보수업(모듈·인버터·구조물)
- ESS 설계·시공(태양광발전 저장시스템)
- 태양광발전소 중개 및 컨설팅
- 가정용 태양광·업소용 태양광(3kw~10kw)
- 전기 공사업

☎ 062-572-3633/010-3295-3633

13

(강원도 1박2일 여행)정선 병방치 스카이워크에서 본 한반도지형

강원도 1박2일 여행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

광주에서 출발해 강원도 1박 2일 다녀오기!

DAY 2

동계올림픽 알파인 경기가 열리는 정선

11. 아우라지 돌다리 - 12.정선 5일장 - 13. 병방치 스카이워크 - 14.화암동굴릉 -
15. 화암약수



13 정선 병방치 스카이워크

정선 5일장에서 정선 토산품인 곤드레도 사고 각종 나물도 좀 샀는데요, 가지고 있던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했죠.

지난번 동창회 산악회 정기총회에서 받은 상품권이 14만원 있었는데 거짐 다 쓴것 같아오. 점심값도 온누리 상품권으로 받더군요.

시장에 관광안내소가 있는데 그곳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지도를 펴고 다음 갈 곳을 알아보는데요,

관광안내소에 근무하는 분이 광주로 가면서 갈 만한 곳을 추천해 주더군요.

거기가 바로 정선 병방치 스카이워크와 화암동굴입니다.



원래는 입구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타고 올라간다는데요, 일요일 오후 시간인지 승용차로 바로 올라갈 수 있더군요. 이곳은 아리힐스 리조트 내에 있는 시설로 스카이워크, 짚와이어 등이 있습니다.



Copyright©2011.
simpro All Rights Reserved

스카이워크는 국내에도 여러곳에 있지요.

갈 때 마다 재미삼아 둘러보는데 해운대는 입장료가 없지만 병방치는 입장료가 있더군요.

성인 1인당 2,000원으로 들어갔다 나오는데 그냥 쓱 지나가면 1분이면 나올 수 있죠.

꽤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스카이워크 끝에 서면 한반도 지형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셋이 들어갑니다.ㅋ



덧신을 신고 들어가봅니다.

아무리 덧신을 신어도 투명유리는 기스가 많아 아래가 시원스럽게 보이지 않습니다.



중국 후난성에는 세계최초의 투명다리도 있다는데요,
사진으로 보는 그곳과는 너무너무 차이가 납니다.



바로 이 사진 때문에 왔습니다.

병방치 한반도 지형이라고 하는데요, 인근 영월 한반도 지형에 비해 더 높은 곳이라 아찔한 맛이 더 합니다.



시크한 아드님과 중전마마.

해운대 스카이워크를 밥먹듯이 가 본다는데 이쯤이야~~~ 합니다..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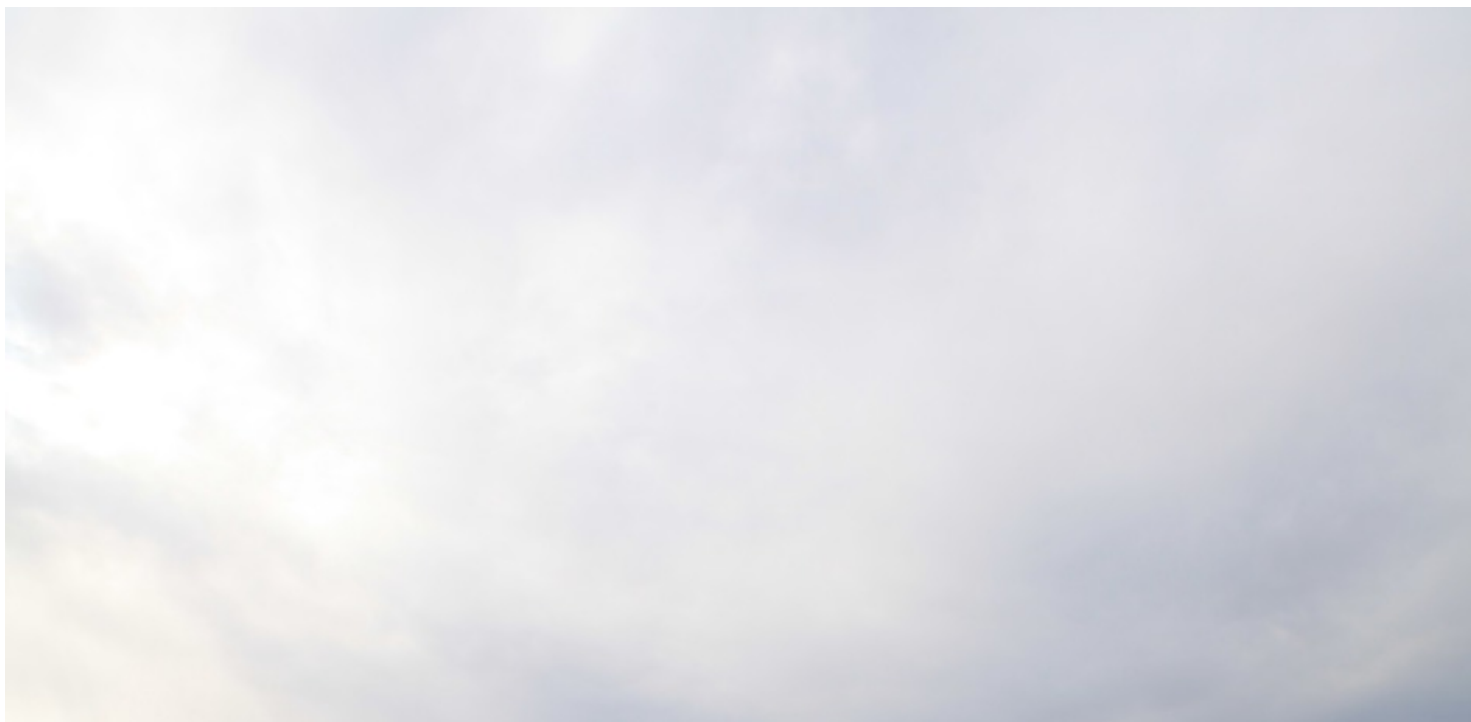
병방치는 스카이워크보다 한반도 지형이 더 유명한 것 같아요.

솔직히 스카이워크는 투명유리가 불투명할 정도로 어두워 스릴감이 넘치지는 않았거든요.

한반도 지형을 보는 것이 목적이니 스카이워크는 덤으로 건습니다.



그래도 해운대보 스카이워크 보다는 훨씬 긴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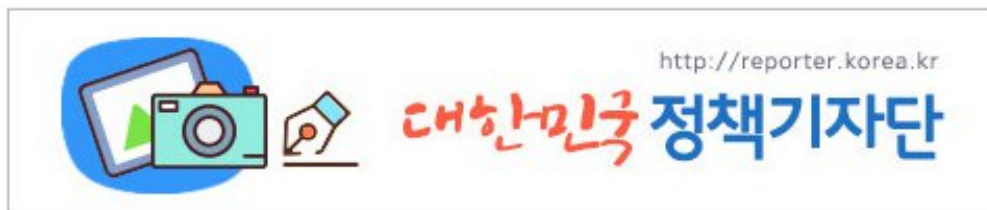
 Copyright © 2011.
simpro All Rights Reserved





스카이워크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짚와이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동강까지 짚와이어를 타고 내려가면 그곳에서 다시 셔틀버스로 이곳까지 데려다 준다네요.
 강진 가우도 짚라인과 군산 선유도 짚라인을 타 봤지만 병방치 짚와이어는 사진으로 보니 더 아찔하던데요,
 역시 시간관계상 패스입니다. 요금도 꽤 비싸 엄두도 나지 않았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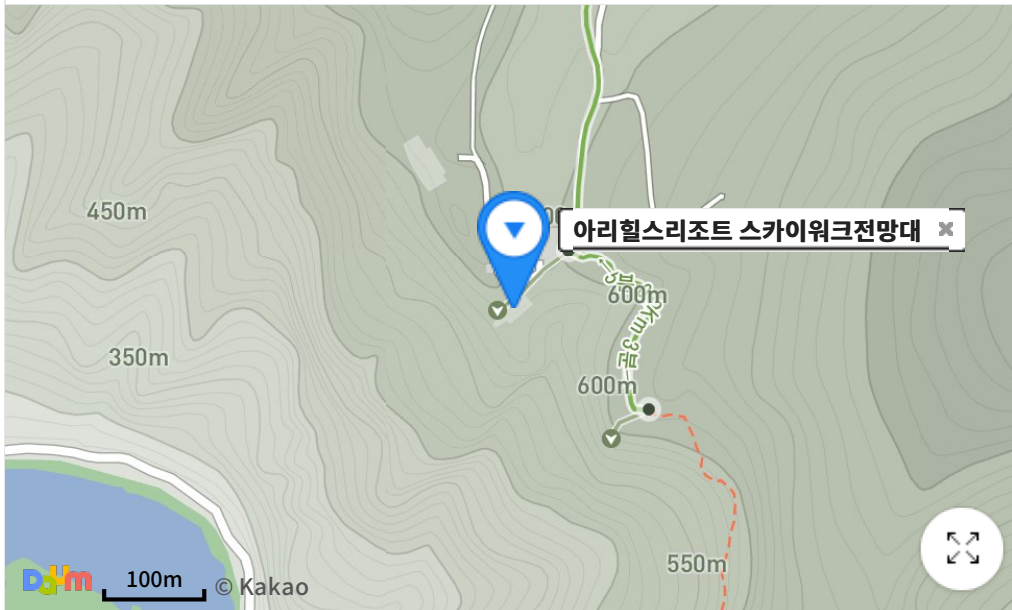
다음 편은 DAY2. 14정선 화암동굴입니다.



아리힐스리조트 스카이워크전망대

033-563-3600 | 강원 정선군 정선읍 굴암리 산 200-6

📍 길찾기



(글 : 포토뉴스코리아 simpro)

트위터 🐦 <http://twitter.com/huhasim>

페이스북 📘 <http://facebook.com/inseob.shim.7>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simpro61>



해찬에서 하는 일

- 태양광발전소 설계·시공(Rps)
 - 태양광발전소 유지보수업(모듈·인버터·구조물)
 - ESS 설계·시공(태양광발전 저장시스템)
 - 태양광발전소 중개 및 컨설팅
 - 가정용 태양광·업소용 태양광(3kw~10kw)
 - 전기 공사업
- ☎ 062-572-3633/010-3295-3633

14

(강원도 1박2일 여행)금광산과 천연동굴로 어우러진 테마동굴 정선화암동굴

2018.02.09 06:00

강원도 1박2일 여행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

광주에서 출발해 강원도 1박 2일 다녀오기!

DAY 2

동계올림픽 알파인 경기가 열리는 정선

11. 아우라지 돌다리 - 12.정선 5일장 - 13. 병방치 스카이워크 - 14.화암동굴릉 -
15. 화암약수



14 정선 화암동굴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날입니다.

광주에서 승용차로 출발해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평창, 강릉, 정선의 주요볼거리와 먹거리를 찾아 떠난 1박2일 여행으로,

올림픽도 즐기고 관광지도 둘러보는 기획취재가 되겠는데요,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정선 병방치 스카이워크를 나서 광주로 돌아오면서 들른 화암동굴입니다.

남쪽지방은 이런 자연동굴이 없어 정선에 들으면 꼭 가보겠다고 마음 먹은 곳입니다.

원래 금광이었다는데요, 폐광된 금광산과 석회석 자연동굴을 국내 최초로 테마형 동굴로 개발했다고 합니다.

전체 관람 거리는 1,803M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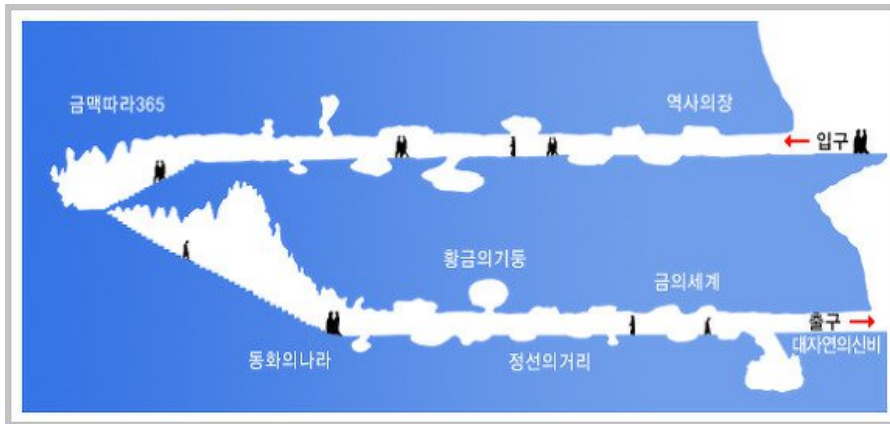


상부궤도로 올라가 하부궤도로 나오는데요, 상부궤도까지 걸어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봅니다.

1번에 85명을 태우고 올라가는데요, 이용요금은 어른 3,000원 중고생.사병 2,000원 어린이 1,500원이네요.
7세 미만은 보호자 동행시 면제이고 13분마다 1회씩 운영되더군요.



이제 상부갱도에서 출발합니다.



관람안내도

관람소요시간: 약1시간 ~ 1시간 30분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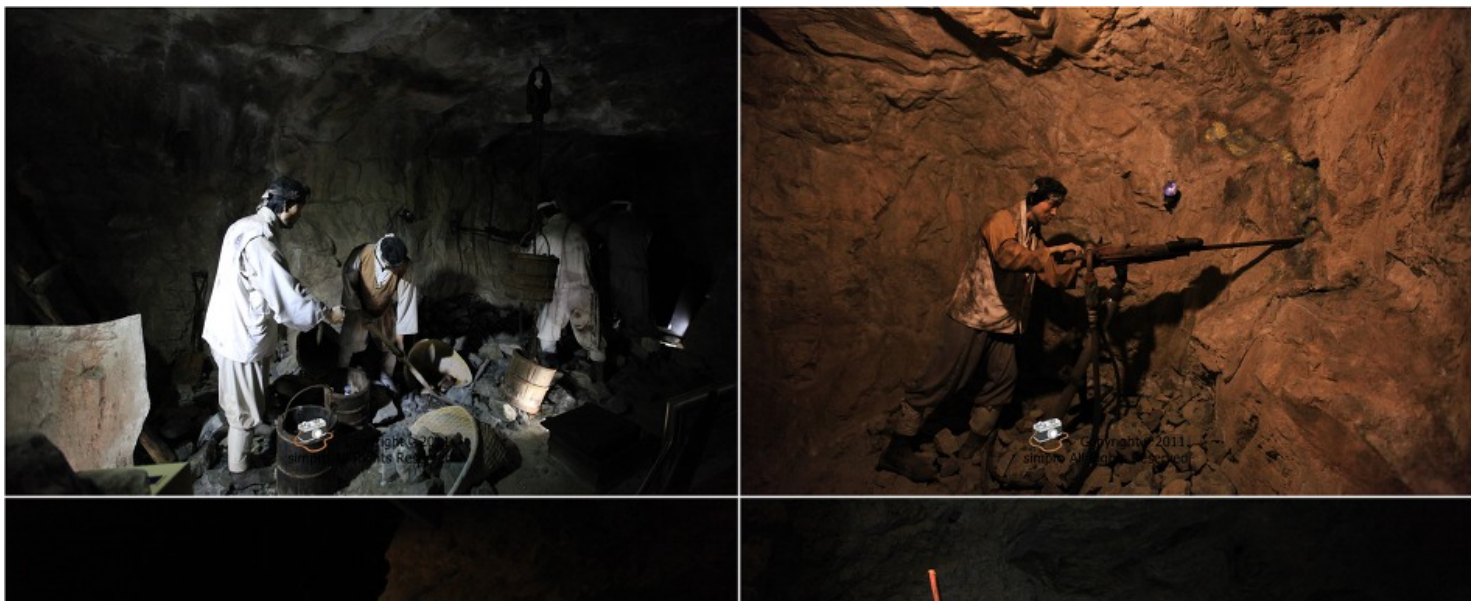
*아래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각 테마별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위 안내도는 화암동굴 안내도인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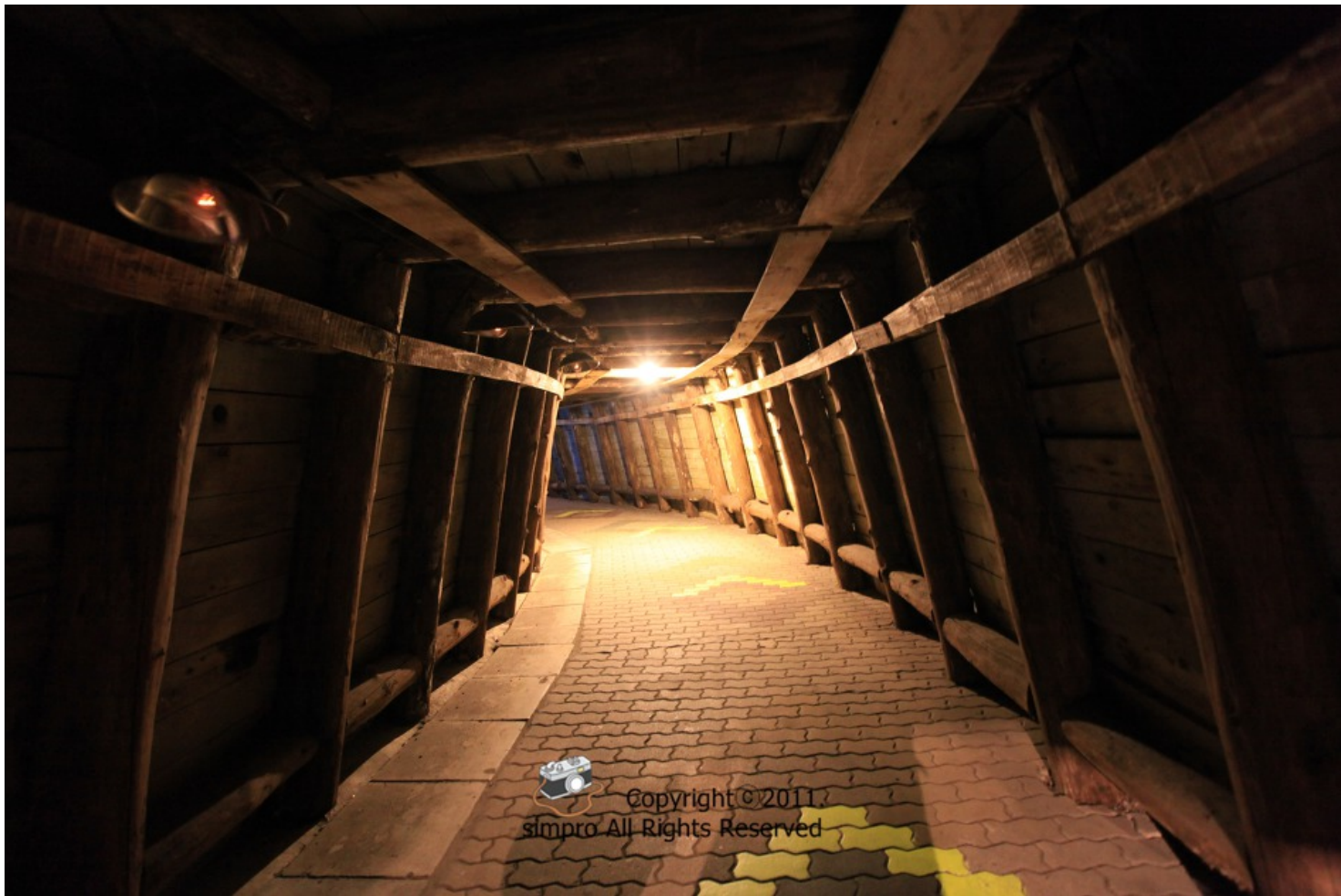
역사의 장, 금맥따라 365, 동화의 나라, 황금의 기둥, 정선의 거리, 금의 세계 등 테마별로 이어집니다.



역사의 장에는 금광산 당시 채굴하던 모습이나 갱도를 통해 운반하는 과정 등 광산의 전 과정을 알기쉽게 시물레이션으로 재현한 곳인데요, 측량과 금맥발견, 지하폭포, 금광맥 등 살아있는 교육의 장입니다.









금맥따라 365는 상하부 갱도를 수직으로 연결한 365개의 계단을 220M정도 내려가야 하는데요, 고저차가 무려 90M인 천연동굴입니다.



대형거북, 공룡상 등 갖가지 형상의 바위들을 볼 수 있는데요, 솔직히 조금 겁이 났습니다.



지금도 금맥이 있다고 해요, 자세히 들여다 보면 반짝이는 금빛을 볼 수 있거든요.





고저차가 90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수백미터는 내려간 것 같아요.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ㅎㅎㅎ





계속 하강합니다. 아찔하더군요.



Copyright © 2011.
simpro All Rights Reserved





바깥 기온은 꽤 춥지만, 동굴 속은 훈훈하더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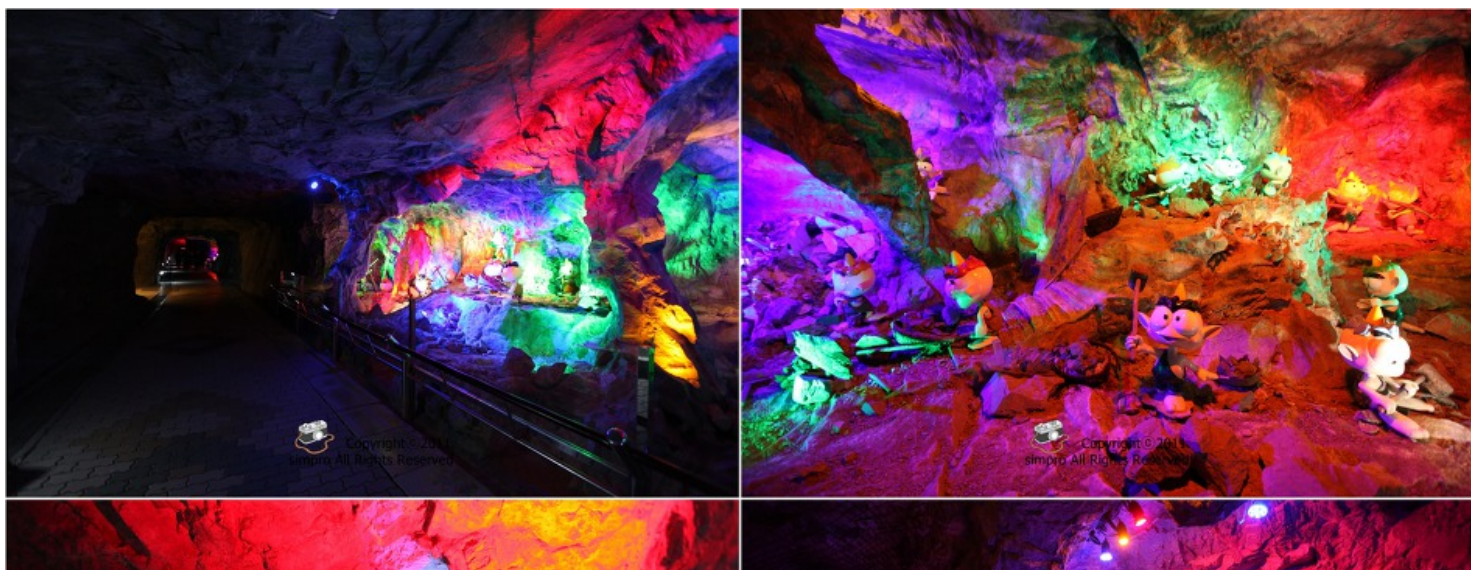




동화의 나라에 도착했습니다.

금깨비와 은깨비가 안내하는 동화의 나라.

어떤 모습일까요?





금깨비와 은깨비는 화암동굴의 상징인데요,
어린이들이 금의 생성이나 채광, 선광, 제련, 금제품 생산까지의 전 과정을 흥미롭게 이해할 수 동화로 표현했네요..





Copyright © 2011.
simpro All Rights Re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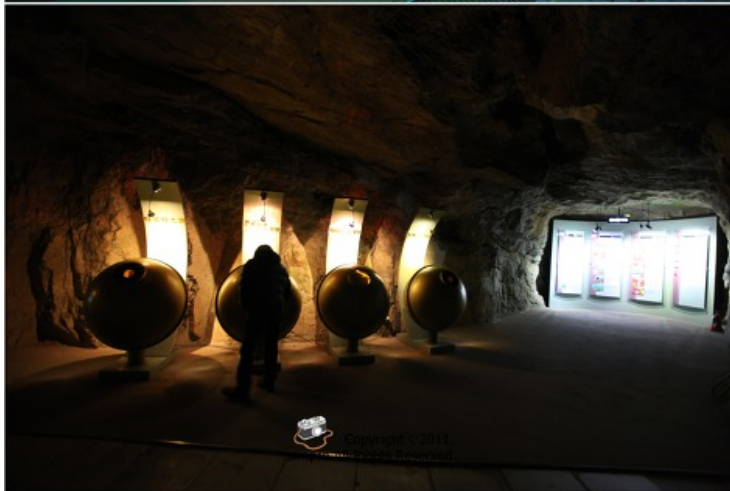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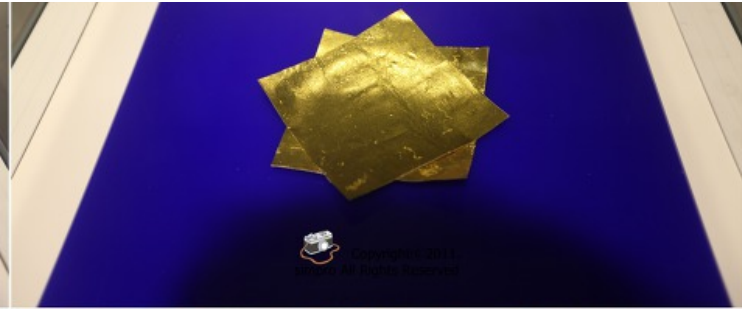
정선의 각 지역을 금깨비, 은깨비와 돌아보는 코스도 있어요.

즐길거리와 먹거리가 가득하구요, 금의 세계 코너에는 금인지 아니면 모조품인지 모르지만 금괴도 있더군요.



이제 진짜 금이라면 ㅋㅋ





금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컴퓨터나 핸드폰에도 금이 들어간다죠?
금의 다양한 쓰임새에 대해 알아보는 공간입니다.





이제 화암동굴의 하이라이트 대자연의 신비를 만나러 갈 차례입니다.

이곳은 천연동굴로 2,975㎡의 대 광장이라고 합니다.

광장은 392M에 이르는 탐방로로 이어지는데요, 아래로 내려갈 수록 겁이 덜컥덜컥 났습니다.





유석폭포라고 하는데요, 높이가 무려 28M나 되는 황금색 종유폭포로 아시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렌즈를 16-35를 사용해서 그런지 동굴대광장이 한눈에 보이는데요, 실감나죠.



유석폭포 중단에는 부처상이 있는데요, 정말 조각해 놓은 것처럼 정교하더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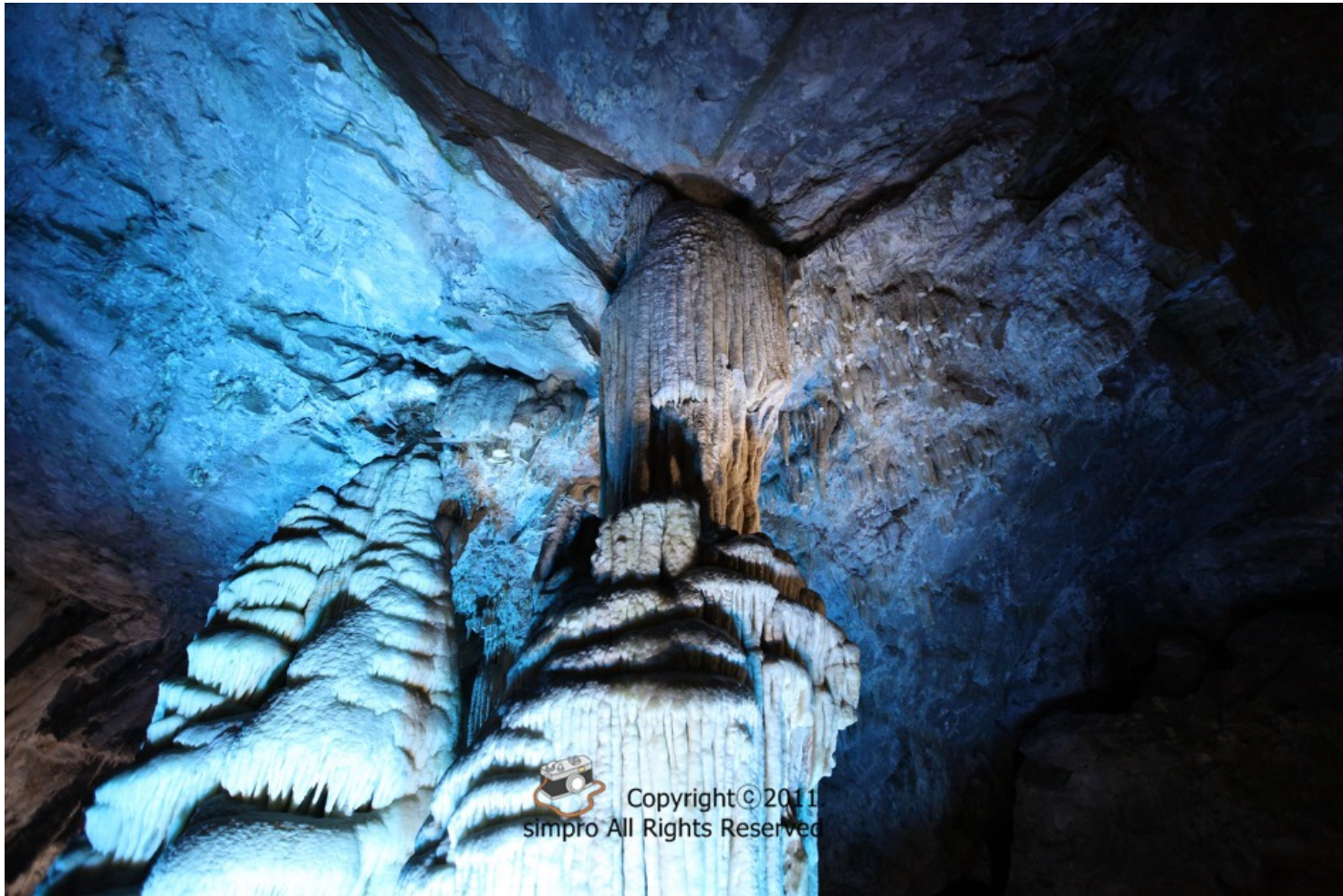
금광산 안에 이런 거대한 광장이 있다니 놀랍기만 합니다.





높이가 8M, 둘레가 5M에 이르는 대형 석순과 석주입니다.

보면 볼수록 자연의 신비로움에 감탄사만 연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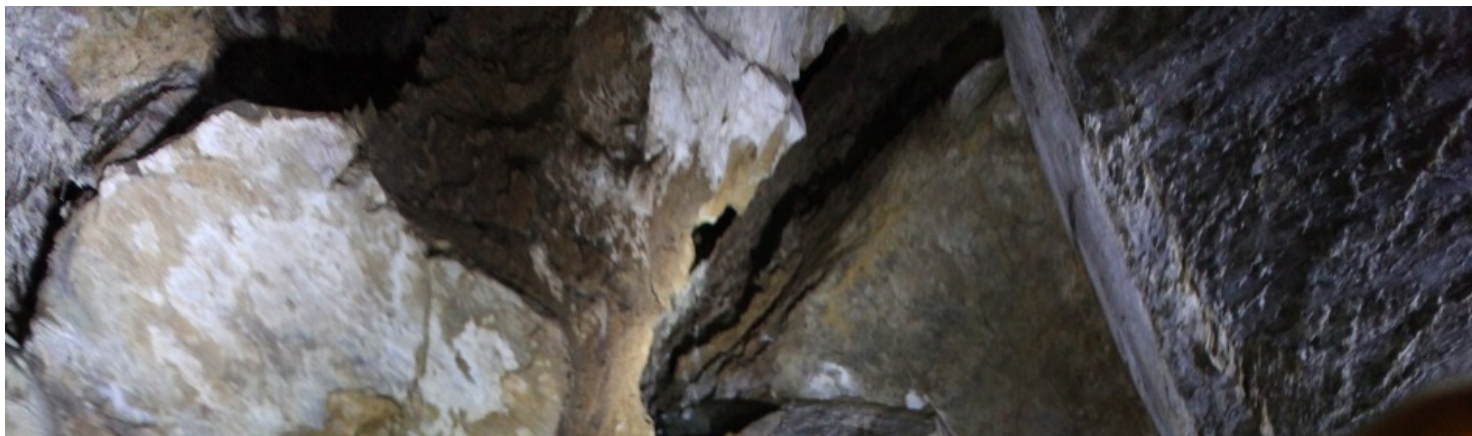






Copyright © 2011
simpro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2011.
simpro All Rights Reserved

이 거대한 종유석은 남근석이라고 불려요.

종유석은 1년에 0.1~0.2mm씩 자란다는데요, 100년이 지나도 1~2cm밖에 자라지 않죠.
이 정도 자라려면 도대체 얼마나 오랜 세월이 지났을까요?







광장안에는 마리아상, 잣송이, 곡석, 샷갓, 석화, 동굴산호, 장군석, 용식공이 있는데 망원렌즈를 단 카메라를 아드님이 가지고 다니는 바람에 담지 못했네요.



화암동굴 대광장을 마지막으로 하부갱도로 나갑니다.



이곳은 하부갱도 출구인데요, 관람은 위로 더 올라가서 상부갱도에서 시작합니다.
이쪽으로는 들어갈 수 없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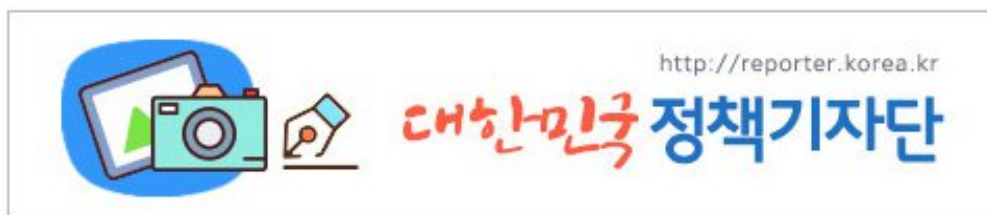


하부갱도 바깥에서 바라본 화암동굴 주차장입니다.

화암동굴의 상징인 금깨비, 은깨비가 있는데요, 필자처럼 남쪽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천연동굴 구경할 기회가 많지 않죠.

이번 강원도 1박 2일 여행에서 가장 기대가 컸던 곳인데요, 만족스러운 동굴탐험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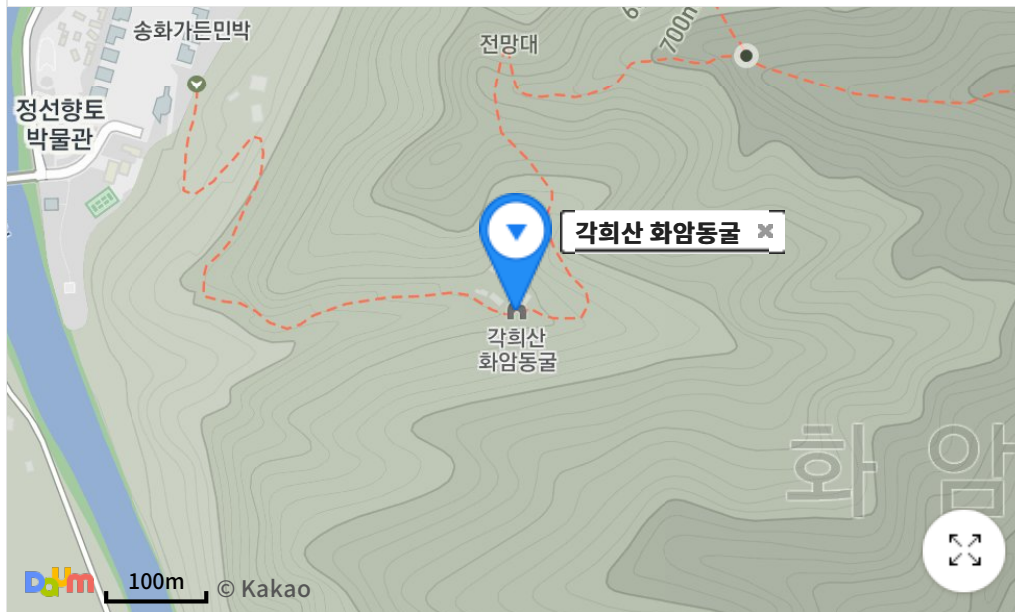
다음 편은 DAY2. 15선 화암화암약수입니다.



각희산 화암동굴

033-560-3410 | 강원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 길찾기



(글 : 포토뉴스코리아 simpro)

트위터 🐦 <http://twitter.com/huhasim>

페이스북 📘 <http://facebook.com/inseob.shim.7>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simpro61>



해찬에서 하는 일

- 태양광발전소 설계·시공(Rps)
 - 태양광발전소 유지보수업(모듈·인버터·구조물)
 - ESS 설계·시공(태양광발전 저장시스템)
 - 태양광발전소 중개 및 컨설팅
 - 가정용 태양광·업소용 태양광(3kw~10kw)
 - 전기 공사업
- ☎ 062-572-3633/010-3295-3633

15

(강원도 1박2일 여행) 특소한 신비로운 맛! 정선 화암약수

강원도 1박2일 여행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

광주에서 출발해 강원도 1박 2일 다녀오기!

DAY 2

동계올림픽 알파인 경기가 열리는 정선

11. 아우라지 돌다리 - 12.정선 5일장 - 13. 병방치 스카이워크 - 14.화암동굴릉 -
15. 화암약수



강원도 여행 1박2일
정선 화암약수

Copyright © 2011.
simpro All Rights Reserved

10 강릉 선교장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의 선전이 이어지고 있군요.

개막 2일 만에 남자 쇼트트랙 1500m에서 임효준 선수가 한국의 첫 금메달을 땀는데요,

무려 7번의 수술로 선수생활에 중대한 위기를 맞았지만 불굴의 의지로 다시 오투기처럼 우뚝 선 선수랍니다.

단일팀 여자하키 선수들도 강호 스위스와 경기에서 일방적으로 밀려 안타까움을 자아냈지만

손발을 맞춘지 보름밖에 안 되었기에 경기를 거듭할 수록 선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 예선에서는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위로 골인하는 투혼을 보여줘
전국민의 손에 땀을 쥐게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시작했으니 한국 선수들이 목표로 세운 종합4위의 위업을 꼭 달성하길 기원해 봅니다.

강원도로 떠난 1박2일 여행 중 들은 정선의 마지막 코스입니다.

물론 광주로 돌아오는 길에 들렀는데요, 화암약수라고 합니다.

위장병, 피부병, 빈혈, 안질, 위암 등에 특출한 효능이 있다고 알려졌죠.



정선에서 광주로 가려면 병방치 스카이워크에서 바라본 한반도 지형 위쪽을 지나 제천 JC로 가야 하는데 화암동굴에서는 화암약수를 지나 군의산(923M)과 지역산(1117M)사이로 난 고개를 넘어야 합니다. 구불구불한 도로가 눈이 쌓였다면 절대 못 지나갔을 것인데요, 운 좋게 제설작업이 잘 돼 도로가만 눈이 쌓여있고 도로는 괜찮더군요.



처음엔 길이 좁아 길을 잘 못 접어들었나? 생각했죠.
이정표가 화암국민관광단지로 안내되었기 때문인데요,
차 한 대 겨우 지나갈 정도 도로로 버스가 다닐 만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화암약수입니다.

1910년 화암마을 사람인 문명무씨가 발견했다는데요,

구슬봉 높은 바위 아래에 청룡과 황룡이 서로 엉켜 몸부림치더니 갑자기 바위 틈에서 물이 거품을 일으키며 하늘로 솟구친 꿈을 꿔다고 해요

그 다음날 꿈에 나온 자리를 찾아가 흠을 팠더니 바위 틈에서 물이 거품을 뿜으며 치솟았다는데 그것이 화암약수입니다.



주변이 푹푹얼어 조심조심 걷습니다.



화암약수에는 탄산이온 854.3mg, 철분 26.9mg, 칼슘 82.9mg, 불소 0.6mg등 건강필수요소가 함유되었다는데요, 이런 물질은 위장병, 피부병, 빈혈, 안질, 위암에 특출한 효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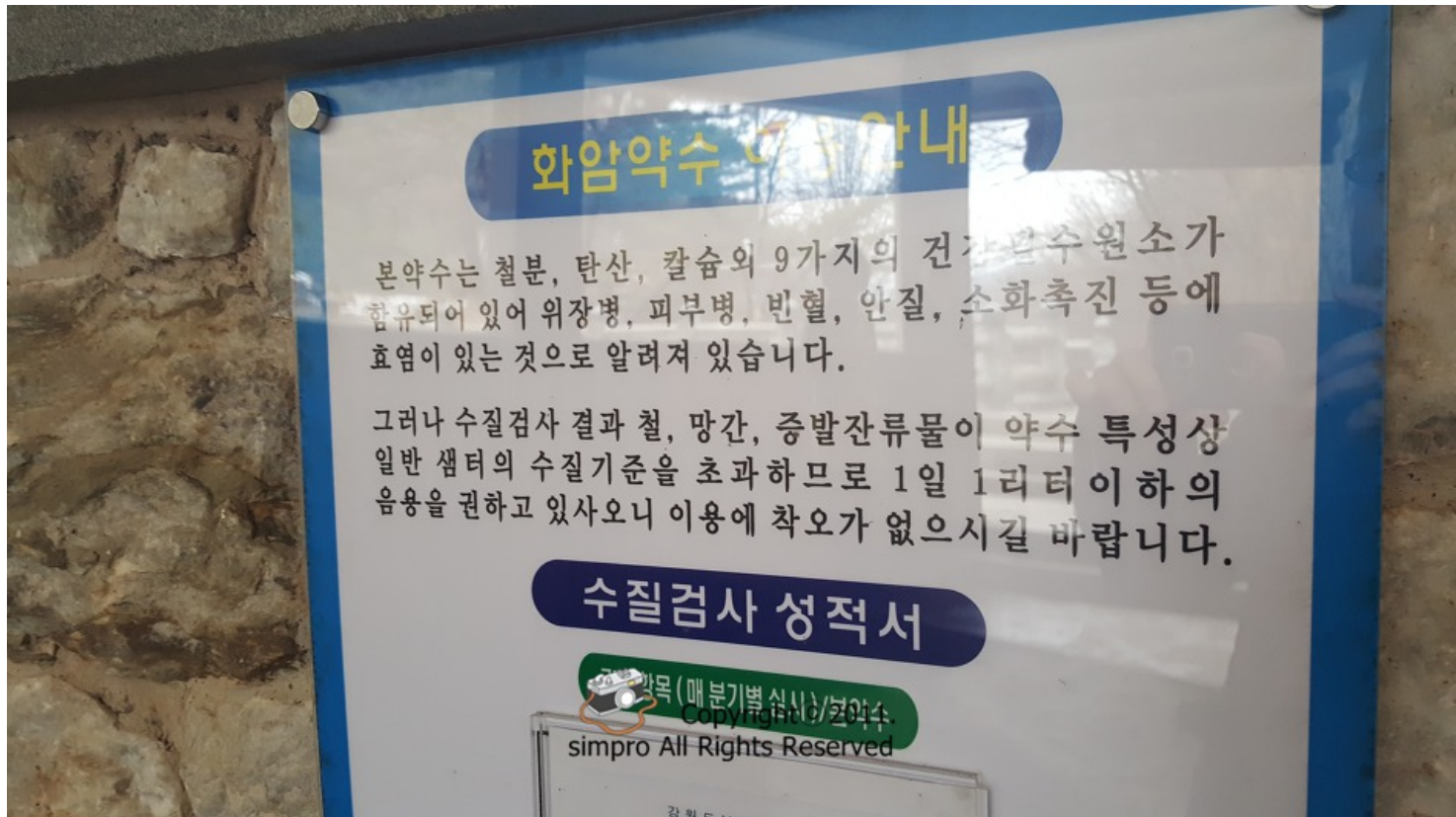


물 맛을 보니 허거덕...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약수터의 물 맛이 아닙니다.ㅋㅋ

톡쏘는 맛이 사이다 같기도 하고 뽀뽀한 한 것이 녹이 쓴 물인 것도 같고..


아무튼 미묘한 맛이었습니다.




안내판에 수질검사 결과표가 안내되었는데요,

일반샘터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이 바로 철, 망간, 증발잔류물이네요.


그러므로 1일 1리터 이상 음용하면 안 된다고 쓰여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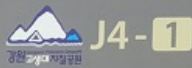


화암약수 전경



화암약수






J4-1

여기에서 어떻게 물이 나올까?

하늘에서 내린 비의 일부는 표면을 흐르지만 많은 양이 지하로 스며들어가서 암석 속에서 흐르고 있다. 이를 지하수라고 부르며 땅을 파면 물이 나오는 지점이 지하수면이다. 지하수가 주변의 땅을 흐르기 때문에 이러한 지하수면은 하천 근처에서는 아주 작은 깊이에 있다. 그런데 암석으로 되어 있는 곳은 작은 틈을 따라 모세관현상(얇은 관을 따라 액체가 흡수되는 현상)으로 지하수가 지표면으로 올라오기도 한다.



Copyright © 2011.
simpro All Rights Reserved





J4-2

화암약수의 맛은 왜 그럴까?

지하수의 성분은 하늘에서 내린 비가 지하로 스며들며 흐를 때, 어떤 암석을 통과하는가에 따라 그 성분이 아주 달라진다. 이곳 화암약수를 분석한 결과, 물 속에는 탄산이온 854.3mg, 철분 26.9mg, 불소 0.6mg 등 9종의 몸에 필요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그 중에서 탄산이온과 철분이 많이 있어서 특쓰는 맛과 덜떠름한 신맛이 강하다. 예로부터 화암약수는 위장병, 피부병, 안질, 위암에 매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Copyright © 2011.
simpro All Rights Reserved



필자도 가지고 간 500ML 병 하나에 물을 담아와 세명이서 나눠 마셨는데요,
거기까지 갔으니 말통 하나는 담아왔어야 하는데 아쉽기만 합니다.ㅋ
혹시 나중에라도 정선을 여행할 일 있으면 꼭 말통 하나를 차에 싣고 가야 겠어요.^^

이제 15편에 달한 강원도 1박2일 여행기를 마무리하는데요,
평창동계올림픽을 맞아 호남지방에서 승용차로 올림픽이 열리는 평창, 강릉, 정선을 다녀오는 내용으로 취재한 것입니다.
잡지에는 2페이지 분량으로 실릴 예정인데요, 아무리 함축하고 압축해도 1박2일 여행기를 2페이지에 싣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훗날 지나온 과정을 블로그를 통해 되돌아보면서 지긋히 미소짓는 모습을 발견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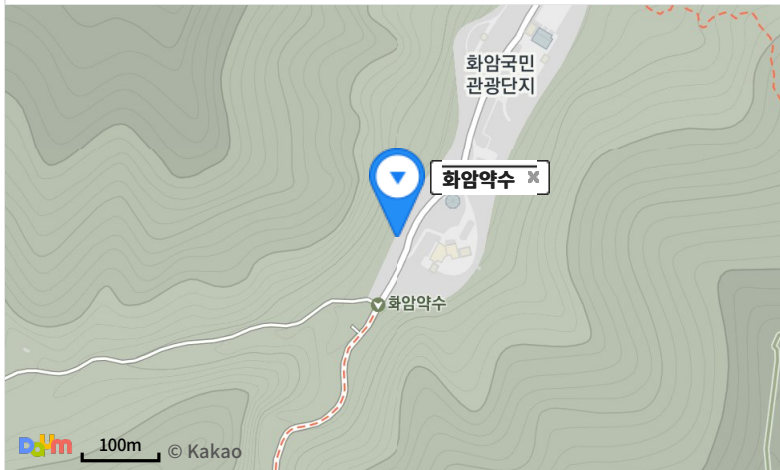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마무리를 응원합니다.!!



화암약수

033-560-3413 | 강원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1177-1

📍 길찾기



(글 : 포토뉴스코리아 simpro)

트위터 📧 <http://twitter.com/huhasim>

페이스북 📧 <http://facebook.com/inseob.shim.7>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simpro61>



해찬에서 하는 일

- 태양광발전소 설계·시공(Rps)
 - 태양광발전소 유지보수업(모듈·인버터·구조물)
 - ESS 설계·시공(태양광발전 저장시스템)
 - 태양광발전소 중개 및 컨설팅
 - 가정용 태양광·업소용 태양광(3kw~10kw)
 - 전기 공사업
- ☎ 062-572-3633/010-3295-3633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 1박2일

블로그 simpro의 반 백년 이야기 <http://blog.daum.net/huhasim>

저자 simpro

발행일 2018.02.14 11:16:58

 블로그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와 전재를 금합니다.